朝鮮日報
夕刊
七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東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月刊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幼年(同上)

廣東灣諸要塞爆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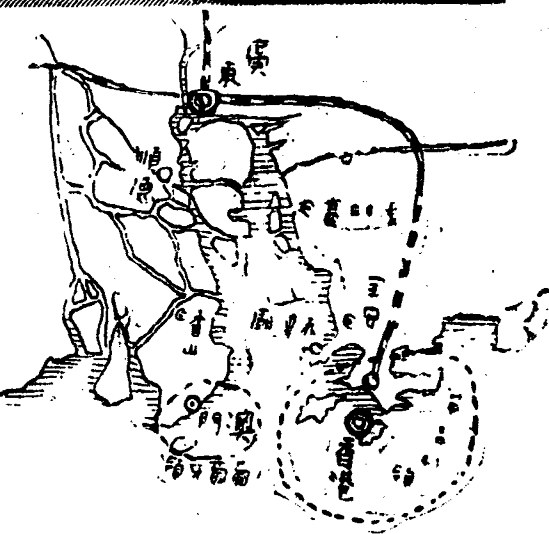
赤灣砲臺寶安城等 南支海岸要害潰滅

【香港六日發同盟】六日午前 我海軍의 赤灣攻擊으로 同地 東砲臺는 火焰에싸여 黑煙衝天하야 夕刻에이르러 灰燼에歸한 模樣이다 그리고 寶安縣城도 我艦砲의 砲擊으로 到處에 火災를이르켰다 그리고 虎門要塞은 이에 驚駭하야 戒嚴令을 布하고 一切船舶의 航行을 禁止하엿다

【香港六日發同盟】寶安縣의 我海上砲擊과함께 我海軍航空隊는 赤灣砲臺及寶安城의 爆擊을 敢行하야 多大한 損害를 與하고 다시 바이아스灣上空에 飛來하야 同所附近에잇는 軍事的要害를 爆擊하엿다 廣東軍飛行隊는 我軍艦爆擊으로 飛來하엿스나 我方의 壯烈한 反擊에 遭遇하야 遁走하엿다

【香港六日發同盟】我海軍機의 今日 汕頭爆擊後 다시 我軍艦은 午前九時 同地要塞을 砲擊하는等 我海空의 廣東省攻擊은 支那軍을 戰慄케하고잇다

【香港六日發同盟】支那沿岸航行을 遮斷키爲하야 廣東珠江入口 赤灣을 警備하고잇든 我○○艦에 對하야 六日午後 赤灣砲臺及 寶安縣으로부터 砲火를 퍼부어 옴으로 我警備艦도 이에應戰하야 敵에게 多大한損害를 與하엿다



空陸雙方攻擊에 黑煙中의敵陣地
上海第一線總攻擊迫頭

【上海七日發同盟】六日海濱港크리크架橋에 成功한 飯田部隊와 虬江兩頭職員住宅을 占據한 石井部隊의 一部連絡이 完成되여 敵의逆襲을 警戒하면서 밤을새엿는데 連日我軍의砲擊에 敵은 多大한損害를 蒙한模樣으로 豫期되든逆襲도없이 比較的平穩한 一夜를새엿다 夜明과함께 我海軍飛行機의 ○機編隊가 轟轟한 爆音도 때마치東天으로 소사오르는旭光에 銀翼을 번적이면서 敵의토지카陣地에 猛襲하야 爆擊을加하엿다 飛行機의 爆擊이 完了된後待機하고잇든 砲兵部隊는 命令一下에 一齊히砲火를열자 敵陣은 黑煙에싸여破壞되다 그리하고 我最前線部隊의 射擊으로 附近民家는 火災에싸여 黑煙은 忽然煙幕으로 化하야 戰線으로 擴大되고잇다 이것으로 第一線部隊의 總攻擊은 漸次切迫되여온다(午前八時記)

證據不充分으로 爲先"遺憾"을表明
倫敦政府는日本不承認時의對策準備
英國大使의負傷事件

【倫敦六日發同盟】휴겟센大使負傷事件에 關한 日本政府로부터 아직 回答이 到着되지안엇거니와 消息通에依하면 英國政府는 衆議院에서 米內海相의 見解에 鑑하야 日本이 自國飛行機의行爲라고 認定치안을境遇의 對策을準備하고잇다한다 英國政府는 八日定例閣議까지 日本의回答이 到達되기를 期待하고잇스나 官邊에서는 日本이 證據不充分을 理由로 責任을回避하야 事件을 解決히處理하려하면 이를承認치 안흘것을 明確히 示唆하고잇다

【東京電話同盟】휴겟센駐支大使의遭難事件에關하여는 我駐外當局에서 여러가지로 現地調査를 進行하고잇는데 事件發生現場이 日支兩軍交戰地域內임으로 調査가자못 困難하고 幾多의 疑問點이잇다

지난八月二十九日駐日 英代理大使로부터 手交하여온 英國政府의 通牒에 對하야 帝國政府로서 此際 爲先回答하기로되여 六日正午 院內閣議에서 廣田外相으로부터 그旨를報告하야諒解를求한後 同日夕刻我外務省으로부터 新任 크레기駐日大使를通하야 英國政府에 對하야 回答하엿다 其要旨는 事件의 眞相이 아직判明되지안키때문에 英國政府에서 提出하여온 三條에 對하여는 直接抵觸치안코 日支兩軍交戰區域內에서 英國大使가

皇太后陛下 宮城에御參內

【東京電話同盟】皇太后陛下께압서는 七日 午後一時 大宮御所御門에 行啓하압신後 처음 宮中에 御參內하압시사 時局重大한 此際 御多端하압시게 옵시는 御精勵하압시는 天皇陛下 皇后陛下께 御慰勞하압신 御入來를 交하압시고 여러가지로 御歡談하압시엿다 特히 酷暑의 南北支 各戰線에서 活躍하는 皇軍의 名譽의 戰傷將兵에게 御下賜하압시기 爲하와 皇后陛下께압서는 每日 御參內하시는 高松宮妃殿下와 함께 繃帶의 御製作에 御勞力하압시는 御模樣等에 對하와 御談話하압시엿다고 拜承되는데 皇軍에게 베프시는 깁흐신 思召는 惶恐不堪이다 皇太后陛下께압서는 午後三時半 宮城 御出門 大宮御所에 還啓하압시엇다

遷都? 南京極度로動搖

【上海六日發同盟】上海方面에잇서 日本軍의 進擊으로 南京市內는 極度로 動搖되여 避難民이 相連하는 現狀인데 各國大公使館은 事務를 執行하고잇스나 大公使의多數는 이미 撤退하엿다 南京政府도 벌서動搖하기 始作하야 長沙、洛陽又는 西方奧地로 遷都할것을 計

吳淞과 泗塘크리크 完全確保가眼目
空水兩部隊軍工路猛擊

【上海七日發同盟】泗塘크리크線을 確保한廬森、石井兩部隊의 一部는 六日午後다시 殘敵을 掃蕩하면서 前進하야 壯烈한크리크渡河戰을敢行하고 同夜廬森部隊의 一部는 黃家宅、陳家宅을占據하고 그리고 石井部隊의 一部는 同크리크西方王家宅、自家橋과 東家宅을確保하고 廬森部隊의 右翼一部는 吳淞크리크 泗塘크리크의交叉點 沈家宅陳家宅에 進出하야 이를占領하엿다 如斯히 泗塘크리크線의 完全占據도 一刻一刻으로 迫頭되여 敵은 陳家宅方面으로 敗走하야 集結하는模樣이다

【上海七日發同盟】我海軍航空隊○機는 七日午前六時頃再次展開、大場鎭方面의 爆擊을敢行하고 또一部는 早朝부터 江灣市政府方面에 爆擊을 加하고 江上의 我軍艦의 砲擊과倂行하야 軍工路方面의 敵에 痛擊을 加하엿다

山西各地繼續猛擊

【北平六日發同盟】새벽의 爆擊隊는 事變勃發以來 數次 戰鬪에參加하야 內蒙古高原에 平綏鐵路에 神出鬼沒의 活動을 繼續하야 支那軍에게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는데 六日早朝에는 銀翼을連하야 突然 山西省各都市上空에 나타나 山西軍各陣地에 向하야 猛烈한 爆擊을 敢行하야 敵에게多大한 損害를與하고 我軍地上隊의 進出을掩護하야 無事○○으로 歸還하엿다

寶山城內外의 敗殘兵을掃蕩

【上海六日發同盟】六日午後十時○○報道部發表
一、砲兵協力下에 寶山城을奪取한 金田部隊는 六日午後城內掃蕩을 完了하엿다
二、天谷部隊는 寶山西方地區에잇서 城內로부터 敗走하는支那兵數百에게猛擊을加하야 거이 이를全滅시켯다
三、長門部隊는 昨五日羅店鎭附近에서 寶山方面으로부터 敗走하는 五、六百의 敵을邀擊하야 이를全滅시켯다

壯烈한戰死!

【上海七日發同盟】寶山縣城西方西門大街의激戰으로 安達部隊의 西條十信軍曹는 單身軍刀를휘두르며 敵의陣營에 突進하야 十數名의敵과 交戰한結果 九名을 베엿스나 軍刀가부러지자 勇敢하게도敵兵에게달려드러 敵의靑龍刀를 奪取하야 阿修羅와如히 奮戰하든中 腹部에 手榴彈을 맛고 壯烈한 戰死를 遂하엿다 同軍曹는 香川縣綾歌郡出身이다

羅店鎭西方서 敵一千包圍殲滅

【上海七日發同盟至急報】○○報道部午前十一時發表 ○○部隊의 一部는 羅店鎭 西北方에서 敵第五十一師 第三十團에 屬하는 約一千을 包圍殲滅하엿다 이戰鬪에서 敵의 團長以下는 거이 戰死하고 砲數門을 捕獲하엿다

中村、加藤 兩部隊長戰死

【上海六日發同盟】六日朝虬江碼頭의 敵前上陸은 彈丸雨飛裡에 敢行되엿는데 中村、加藤兩部隊長은 率先先頭에서서 上陸하야 勇猛奮戰하든中 不幸히 敵彈이 命中되여 名譽의 戰死를遂하엿다 兩部隊長陣沒의報를接한 中島部隊長은 切齒扼腕하면서 中村、加藤兩部隊長의 怨讐를반드시갑는다고 部隊를 激勵하고잇다

鈴木中尉戰死

【上海七日發同盟】五日午前十一時頃 寶山附近大新巷附近의戰鬪에서 敵陣에 敢然軍刀를 휘두르며 突入하야 몸에 六箇의 彈丸을 맛고도 敵兵七名을베인 鈴木正英中尉(福島縣出身)은 다시 一名의 敵을베이려하든刹那 胸部에手榴彈을맛고 壯烈한 戰死를 遂하엿다 그리고 中尉와함께 奮戰하든 杉浦源松准尉도 腹部에 流彈을맛고 名譽의 戰死를遂하엿다

小野機關大佐重傷

【上海七日發同盟】六日午後 我軍艦○○이 陸軍과呼應하야 敵陣地를砲擊하는中 第○艦隊機關長小野胖機關大佐는 胸部에重傷을負하엿다

中村勝平中佐負傷

【上海六日發同盟】六日午後戰鬪에서 小野機關大佐와함께 第○艦隊參謀中村勝平中佐는 左肩에負傷하엿다

廿億圓事變費 衆議院無難通過

【東京電話同盟】臨時軍事費豫算二十億二千二百萬圓 事變關係各省所管總豫算 四千二百餘萬圓及特別會計 追加豫算案에 對한 衆議院各派의 態度는 모두無修正으로 政府原案을 承認하기로 決定하엿슴으로 午後豫算總會에서 全會一致로 可決한後 即時會議에 緊急上程하야 討論을省略하고 滿場一致로 可決하엿다 茲에 支那事變의 歷史的意義를가진 軍事豫算案은 衆議院으로 通過하야 貴族院에送附되엿다 따라 貴族院은이送附를기다려 即時本會議를開催하고 賀屋藏相으로부터 財政方針演說이잇고 繼續하야 豫算總會를 開하엿다

聯盟提訴無意味 某外交消息通談

【上海六日發同盟】滿洲事變結果 國際聯盟을 信賴할수업다는것을 깨다른 支那가 再次聯盟에 提訴하게되것은 溺者가 집오래기라도 붓든다는 俗語와 가튼것이다 當地某外交消息通은 右에關하야 六日午後九時往訪한 記者에게 左와如히 말하엿다 支那側의 提訴를 聯盟이 受理하면 聯盟規約第十七條의 問題로 될것이다 同條項이 適用되드라도 다만聯盟은 協議한結果에 基하야 日本側에 通告할뿐으로 何等日本에對하야 拘束力을 가지는것은아이다 日本이 이것을 一蹴하면 그뿐으로 큰問題는되지안흘것이다 經濟封鎖에對해서는 聯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七日午前九時四十分부터 十一時四十分까지 열리엇섯다 ……에際하야 下賜하옵신 勅語를奉讀하는참 ……日本의事變에 ……明白히되것을 누구나 ……이다 即帝國을 中華民國과의提携協力으로 東亞의 安定을確保하고 共榮의 實을擧하려는것이나 民國은 깁히 帝國의 …… 解치못하고 함부러 일을꾸미어 今次의 事變을보게되것인데 ……事變에 處하고잇슴은 다만支那의 反省을 促하고 迅速히 東亞의 平和를 確立하려함에 不外하는 …… 帝國의 方針을 明白히 …… 國民으로서 깁히 …… 承하야 …… 時局에 對處하야 …… 國民의 忠誠奉公에 …… 勤務에 依하야 …… ▲增永法務局長 現在 在監中의 思想犯人에 時局의 眞相을 說明中인데 …… 外는 今回事變이 當然함을 自覺하고 …… 勝捷을 祈願中이다 ▲松澤外務部長 九月四日까지의 支那人의 撤歸者 二萬五千七百五十三人으로 全體의四割二分强에 達하고잇다 其他北支에 對한 物資供給에對한 報告가잇고 ▲大竹內務局長 …… 에對하야 …… 熱心이엇다 全南에는 …… ▲三橋警務局長 …… 아니라 支那全體에 對하야 …… 者에게는 …… 에依하면 朝鮮人의 兵隊 …… 顧者는 그間京畿道의 二十五名 ▲大竹內務局長 …… 水害가 잇엇스나 …… 一、二、三割增收가 豫想되고잇다 ▲鹽原學務局長 …… 의 說明이잇고 閉會하엿다

支那軍事當局은 日本軍의 揚子江沿岸上陸에 最終目的地는 南京이나 우리도 準備가 잇슴으로 遷都할必要는업다고 말한다

米軍需品積載船 支那로向하야出帆
日本海軍의態度注目

【紐育六日發同盟】支那로 向하는 베랑카爆擊機十九臺 其他軍需品을 積載하고 지난二十七日 발티모어港을出帆한 아파이오니아 汽船會社所屬 위키타號는 六日 파나마運河를 通過하야 太平洋에 入한旨의 報告가잇다 日本軍艦이 同船에對하야 如何한 態度를 取할는지 日本海軍의支那沿岸封鎖의 試金石으로 注目되다

伊、蘇抗議一蹴 蘇汽船二隻射擊事件

【羅馬六日發同盟】伊太利外務省은 六日午後蘇聯代理大使가 차노外相訪問後 本日 蘇聯代理大使는 차노外相을 訪問하고 地中海에서 蘇聯汽船二隻이 水雷射擊을 받은데 對하야 伊太利政府에 抗議하고 損害賠償及責任者處罰을要求하엿다 이에對하야 차노外相은 伊太利에 全然責任이업다는 言明을하고 蘇聯政府의 要求를 全部拒絶하엿다
【羅馬六日發同盟】蘇聯駐箚蘇聯代理大使헬만드氏는 六日午後伊太利外務省에 차노外相을 訪問하고 伊太利軍艦이 蘇聯汽船二隻을 擊沈한데對하야 嚴重抗議하고 損害賠償及 責任者의 處罰을 要求하는言書를 送한 通牒을 手交하엿다 이에對하야 차노外相은 蘇聯汽船擊沈은 伊太利의 何等關知할바가안이라고 蘇聯의 抗議를 一蹴하엿다

히틀러總統 뉴른베륵市에

【뉴른베륵六日發同盟】第九回나치스黨年次大會는 七日午前十一時를期하야 開催되엿다 히틀러總統은 六日午後四時 多數의黨首腦部를거느리고 首相以下黨各官廳代表의出迎裡에 뉴른베륵市에到着하엿다

西班牙叛軍 英船航路變更强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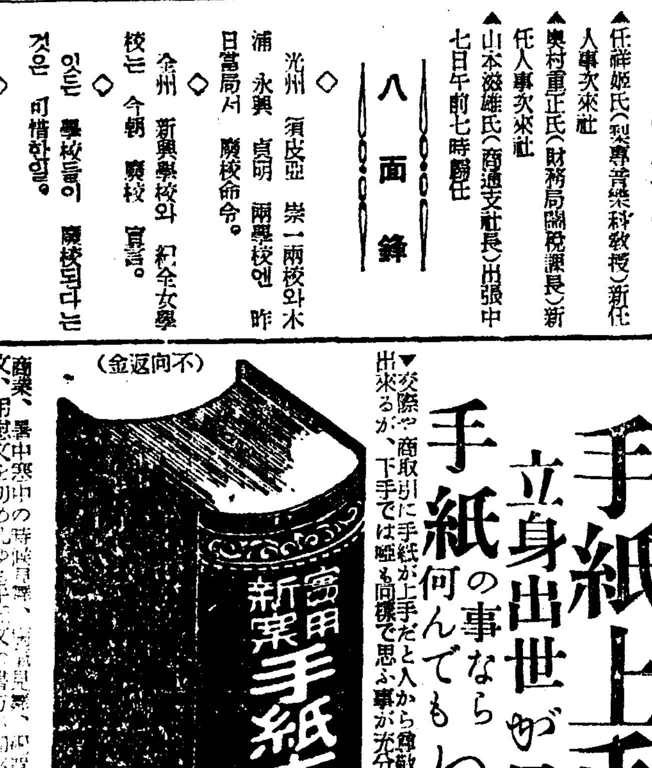
【倫敦六日發同盟】英國油送船바리른號는 黑海沿岸바줌으로부터 石油를積載하고 六日팔것다市로 向하야 시실리 팔레르모 前海를航行하든中 西班牙革命軍所屬軍艦에게 强制的으로航路를變更하야마요르카群島팔마市로向하게되엿다 英國政府는 眞相을調査한後革命軍에게 警告를 行하리라고 觀測된다

人事·集會

▲任薛姬氏(梨專音樂科敎授)新任人事次來社
▲奧村重正氏(財務局關稅課長)新任人事次來社
▲山本茲雄氏(商通支社長)出張中七日午前七時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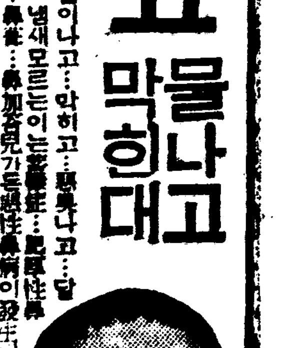
八面鋒

◇光州 須皮亞 崇一兩校와木浦 永興 貞明 兩學校엔 昨日當局서 廢校命令。
◇全州 新興學校와 紀全女學校는 今朝 廢校 宣言。
◇잇든 學校들이 廢校된다는것은 可惜한일。
◇남은 問題는 學生들의 措處를 爲하야 當局 敎職員 學父兄 社會가 한가지로 努力할일。
◇時局關係로 新規豫算에는 一大削減이 잇다고。
◇不得已한 事情이지나 社會政策豫算도 緊要。
◇女給으로 變裝한 男子가 二年만에 被逮、發覺。
◇世上에 男子보다 女子가 돈벌기 쉬운것을 알엇슴。
◇心理學者와 社會學徒자 硏究할好資料。



手紙上手は立身出世が早い！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交際や商取引に手紙が上手だと人から尊敬され何事もうまく世渡り出來るが、下手では啞も同樣で思ふ事が充分表はせず遂に義理を缺いたり先方の感情を害したりして失敗することが多い
(不向返金)
◎本書は四六判クロース裝で手紙の書方から面白い手紙の文例、用語、儀禮、作法、葬祭、百般の書翰が網羅してある
商業、暑中寒中の時候見舞、結婚、出産、交際、用談文を初め凡ゆる手紙文の書方が眼前に浮ぶから下手な人でも少しも頭を痛めずスラ／＼と思ふ通りに書ける理想的の手紙大辭典です
一圓廿錢
定價二圓の處特に半額
▼今回十五版發賣記念に限り上記の定價一圓二十錢に大送料十五錢を加へ代金引替はハガキで申込次第御送り致します
呈進・景品・呈
發賣元 大阪東淀川局區内西町振替大阪五貳八貳番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常用漢和大辭典」定價一圓の二冊を特別景品として同封進呈す

아이생활
十月號出來！
特輯 초가을
一部 十錢
一年 一圓
支局募集
西大門町二丁目八九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一番

◀只今곳곳치라▶
코물나고 막힌대
코를나고…막히고…냄새모르는이는 蓄膿症…鼻加答兒…鼻炎…肥厚性鼻炎…鼻茸…

鼻病解說(無代送呈)을보면 무엇이 原因인지 손쉽게 알수잇다
鼻藥專門 東京市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藥品部

業務大擴張에對하야 幹部社員招聘
(北鮮 西鮮 全南 慶南 主要地에 出張所新設코저함)
有經驗者 思想堅實 相當敎養잇는분으로 鐵道官吏及警察官等을 特히歡迎
希望하시는분은 支社에自筆履歷書를送付하시든지 持參來談을요함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
本社 東京丸ノ內有樂町 社長 金光庸夫
朝鮮支社 京城府花園町四五 支社長 河鎔辰
(其他支社 出張所全國重要地에有함)
○日本敎育生命(姉妹會社)
敎育資金、結婚資金의有利한保險도有利함
(詳細한것은保險案內에在하니請求하시는대로送呈함)

東京建物株式會社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十五番地
電話本局 一三八一番 一六八一番
建築 請負
建築 設計
資本金 壹千四百參拾七萬五千圓也
本店 東京
支店 橫濱、鞍山、天津、京城
出張所 漢口、奉天、大連
建築資金貸付

劇團 中央舞臺 公演
一日字一
九月 七、八、九日 開城 開城座
九月 十、十一、十二日 延安 延安劇場
九月 十三、十四、十五日 海州 海州劇場
九月 十六、十七日 信川 信川劇場
九月 十八、十九、二十日 沙里院 共樂館
九月 二十一、二十二、二十三日 平壤 金千代座
九月 二十四、二十五日 鎭南浦 港座
演技部(無順)
朴齊行 徐月影 沈影 孟晩植 李元根 宋在善 太乙民 李一淳 尹敎玄 徐成大 任泳完
申鷹均 南宮仙 金愛順 閔英華 金映玉 高永蘭 韓銀珍 南宮蓮 元點淑 朴眞淑 (下略)
一인 사一
「中央舞臺」가 朝鮮劇界의人氣를한몸에실고 誕生되여 京城에서 興行잇슬때마다 壓倒的成績을내여 今般西鮮各地를尋訪하겟사오니 만흔愛護를내려주기를 바람니다。

全南四教會學校에 當局、閉鎖命令

愛國日에神社參拜에不肯한理由로 六日道知事斷乎處斷

륙일 전국적으로 거행된 애국일(愛國日)에 각지학교학생 생도、아동직원들이 모두 신사참배를하엿는데 전남에잇는 기독교남장로회(南長老會)경영의 네학교는 생도、아동、직원들은참배를하엿스나 학교장인 서양인은 이를단연불가라고 제지하는태도를 취하엿슴으로 이에 전남도당국에서는 그태도를묵과할수업서 륙일오후 단호히 폐쇄명령을 내리웟다 그학교는 광주의 스피아녀학교(須彼亞女學校)(녀자중등학교로 생도팔십사명)과숭일학교(崇一學校)(보통학교정도로 아동수는칠백여명)과목포(木浦)의정명녀학교(貞明女學校)(보통학교정도로 녀자아동수삼백륙십명)영흥학교(永興學校)(보통학교정도로 남녀아동일백오십명)인데 륙일아침전기각학교에서는 조선인직원이며 생도아동들은 신사참배를하러가려고함에 학교장인서양인은 이를제지하려고 하엿고 또는신사 참배를하고 돌아온것에대하야 교장의명에응치안는것은 학교에너을수업다고 하는태도를 취하야 도당국의방침에 전혀용합태도를 보이지안흔것이다 이에 도당국에서는 당장즉일로써 지사의권한으로 폐쇄명령을내린것이다 이사실은 칠일 학무국장은 국장회의에보고를하는동시에 남직원과 생도아동은 어떠케해서던지구제할 방침이란뜻을 말하엿다

設立者의態度를 諒解하기困難타 四學校閉鎖에對하야 鹽原學務局長談

어에대하야 총독부염원학무국장(鹽原學務局長)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륙일애국일(愛國日)에 광주(光州) 숭일학교(崇一學校) 수피아녀학교(須彼女學校)와 목포(木浦) 영흥학교(永興學校) 정명녀학교(貞明女校)등 네학교생도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하야는 륙일오후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폐쇄처분을 나린 모양인데이것은 총독의방침에 의하야 단행한 지방장관의 처분 인즉 어데까지든지 지지하랴고한다 이상네학교의생도 약일천륙백명과 일부교원의 처치에대하야는 총독부로서 극력구제하야하등의 유감이 업도록 하랴한다 원래 오늘과가튼 비상시국에잇서서 내선일체와 무운장구의기원을목적으로 신사에 참배하랴는생도를 교장혹은 설립자로서 저지하랴는것은 어떠한리유가잇든지 그태도를 량해하기곤난한일이다

전주신흥학교(全州新興學校)와 기전녀학교(紀全女校)문제에대하야는 아직하등의보고가 업스므로 무엇이라고 말할수가업스나 설립자가 폐교하랴하면 그것은 할수업는일이니 이것역시 소관 지방장관의 신념잇는 방침으로 적절한처분이잇슬것으로생각한다

宣教會에報告 須彼亞校長談

『수피아』교장『유하련』씨는 다음과가티말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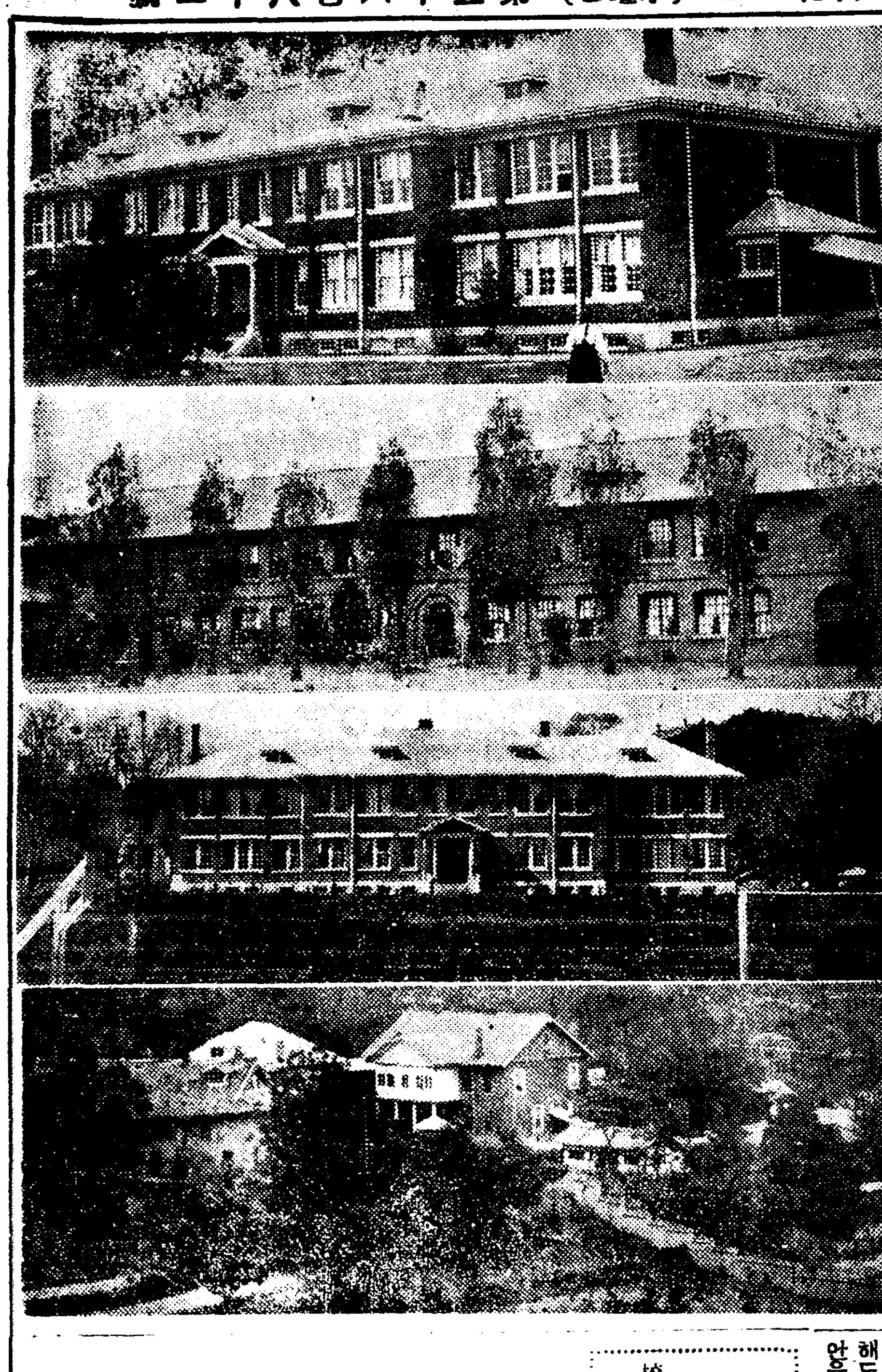
당국의방침에의하야 어제밤폐교의 통고를바덧다 금후이사실을 선교사회에보고 하겟다는의미의 답변을한후 눈물을먹음고 신흥한태도로 긴말을 피하며 이번사건에 대하야유감의 뜻을표하얏다

二千餘學生 公立學校에斡旋 全南道學務當局談

【光州支局特電】전남(全南)학무당국발표에 의하면 륙일애국일을 당하야 도내각학교에 신사참배를 통고하얏는바 수피아(須彼亞)숭일(崇一)목포(木浦)영흥(永興)정명(貞明)등네학교는 참배를 거절하얏슴으로 폐교처분을 하얏다고한다 또한 당국은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신사참배는 제국 신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유래경신숭조(敬神崇祖)는 아국교육의 근본정신이다 금번애국일은 황국의륭성을 축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비는 국가적 의의를 가진것이다 여기에대하야 이상각학교장은참배를 거절하얏다 따라서 당국은 제국교육의근본방침을교란하는것으로보아 단호한처분을한것이다 금번폐교당한 학교생도합계 이천여명은공립학교에서수하하도록할방침이다

全州新興、紀全兩校 七日遂廢校宣言

『풀톤』氏聲明에依하야兩校校長으로부터 七百餘在學生의處置策奈何



【全州支局電話】륙일 애국일행사참가문제로 물의를이르킨 전주신흥학교(新興學校)에서는 칠일아침여덜시반 평상시대로 직원 생도가등교한 시간에 돌연 동교교장인돈(印敦)씨로부터 『우리학교는 금일일부터 미국전도국본부총무『풀톤』씨의 성명서에 의하야 오늘부터 폐교를한다』는 선언을하엿다 부질부질내리는 비를마즈며 학교운동장에서 이청천벽력과가튼선언으로학교 교직원과 생도일동은 너무나의외의 선언에놀라 방성통곡하는양은 참아보기어려운 정경이엇다 현재동교생도수는 고등과에 이백삼십삼명 보통과에 이백팔십구명 합오백이십이명이다 그리고 이와동시에 신흥학교의 자매교인 기전녀학교(紀全女學校)에서도 동교교정으로부터 가튼 리유미테 폐교선고를내리엇는데 동교생도는 고등과삼십삼명 보통과 일백칠십칠명 합이백십명이라한다

『풀톤博士聲明書대로處事』 校長印敦氏談

지금은 무어라고 말슴하기어렵습니다 오직 이미결정해논『풀톤』박사의 성명서대로 나가겟

在學生處理는 積極的으로斡旋 폐교는신청을하여야… 西田道學務課長談

학교가 폐교를한다면 교장이 정식으로 폐교신청을 하여야합니다。아직 신흥학교로부터는아모소식이 업는데 설령폐교한다해도 학교당국으로서 어떠한표안을가지고 오겟지오 학교운명이최후에 도달한다면 재학생처치문제에 대하야는 적극적으로타교에의전학을알선하겟습니다。

廢校될教會學校

上으로부터 光州의 須彼亞女校와 崇一學校、全州의 新興學校와 紀全女學校

末輝里、溫井里間 自動車道路完成

계수하기 위하야 불통중이든 금강산 말휘리(末輝里) 온정령(溫井嶺)사이의자동차도로는 수일전에 완성되여 직통운전을하게 되엿다고 칠일에철도국에통지가왓다한다

東京올림픽大會 重大危局에逢着

時局에비취어中止하자고 各方面에有力意見

【東京電話同盟】황기이천육백년기념축전과 때를가티하야 동경에서 거행될 제십이회 국제올림픽대회는 열본미증유의 경사롭은 행사로서 내외로부터 다대한기대를 가지고잇든바 때마츰 지나사변의 확대에따라서조야는 거국일치아래 전시체제를가추어 동양평화의 확립에로 매진하기로 되엿는데 어에따라 올림픽 대회의개최등은 저윽히 복잡미묘한 관계에 빠지게되엿다 그리하야 어문제는 대외적으로도 큰영향이 잇슴으로 정부와민간측 관계단체에서도 자못신중한태도를 가지고잇스며 어올림픽대회문제는 국제신의상으로 보아서도 가급적속하게 결정을지을필요가잇서 정부에서는륙일오후에 근위(近衛)수상이 중의원예산총회석상에서 정우회의 하야일랑(河野一郞)씨의 질문에 회답한바와가티 되수잇는대로 속히관계각방면과 협의한후 결정할의향인바 정부내와 관계단체방면에서는 『시국에 감하야 종래의모든것을 다버리는 동시에 동경개최를 단념하고 국민이 단결하야 지나사변의 해결에 향하야 매진할것이다』라는의향이 가장 유력하기에 이르럿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아즉도 올림픽대회개최를 주장하는편이 엇스나 정부와 관계단체사어에서 다시 협의한후 결국 동경 올림픽대회는 단념할는지도알수업다한다

假醫師行勢

橋北町三世堂藥院長 李圭元을檢擧取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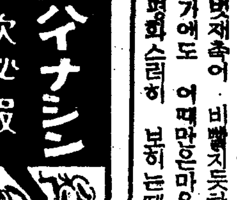
부내교북정(橋北町)일백십삼번지 삼세당약원(三世堂藥院)주인 침구과의료사(鍼灸科醫療師)리규원(李圭元)(三○)이는지난사월부터자기의허가마튼 령업을버서나서일반의사의행세를 하야가며 성병치료에 『살바산』(俗稱六○六號)주사를 하얏슬 뿐아니라 기타일반환자치료에 종사하며 극약등을 사용한것이 서대문서에발각되여 칠일오전 그서에부잡혀왓다 최근부내각처에는 소규모의원을 차리고 자본이업서개업못하는 의사를 초빙하야다두고자기가 원장인척하며 의사행세를하려는자가 만흠에 비추어아프로 여행면에대한 제재가나릴것으로 전기삼세당료원은 즉시영업정지처분을 할터이라고한다 (사진은부정영업한삼세당료원)

阿片中毒으로 身勢망친運轉手

손임의호주머니털기가일수 罪狀綻露●警察에

부랑운전수의 초노급(超弩級)이 종로서에 체포되엿다 부내 도화정(桃花町)삼백오십륙번지김태호(金泰鎬)(二八)는 운전수생활로 십년동안에 배운것이 아편맛으로 매친내 중독이되여 지난해봄에는 절도죄까지 범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팔개월의형을 마치고나온뒤 금년봄부터 시내여러 탁씨운전수로다니며 발뒤계 료정에서술어대취하야 집으로 도라가는손임을친절히 모시는척하고는 호주머니에 들어잇는 현금을훔처내여 아편과 게집에 소비하야 오것인데 엿셋날밤에도 관철정(貫鐵町)모기생집에 잡복하야 엇는것을 종로서원이 체포하엿다 아직취조중으로 피해액은 상세치안호나 팔개월이상이니 계속한범행으로 수십건에 천여원이상에 달할것이라고하며 동서에서는 피해자의 주소씨명을하나도몰라 취조상곤난을 밧고잇다

芳香 イナシ 一吹必殺



意外의處事에 職員側驚愕

廢校宣言듯고職員會開催 最後的對策을協議

이번 애국일행사참가문제에잇서 교장인돈씨의 의견에 대립하야 신흥학교직원들은이비 행동을취한 결과 이를 예사러가든바에 이를것을 예기치못한바는아니나 너무나 의외로그시기가 단축되엿대대하야경악을하고 방금긴급 직원회를개최하고 학교운명에대하야 최후적으로 대책을 협의하고 잇는중인데 직원중모씨는 폐교선언직후에 다음과 가티말한다。

『우리학교가 오늘의 운명을가저올줄은 예기하얏든일입니다。그러나 교장으로부터오늘상화시간에 생도들에게 폐교선언을 하기전에 직원에게는 말한마듸업시 무어라고 말슴드려야할가요?

生徒側의希望

매일생님께서 직접하서서 모든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주셧스면 합니다 …포로 우리에게는것은 재학생을 여명의 처치문제인데 다만바라는것은 학무당국이 끝까지선처하여주기를 기다리는것입니다。

淸津商工會議所 重大決議

各要路에打電

【淸津에서本社特派員吳文一發特電】지난오월에 조흥환(朝興丸)나포사건이 발생한이래 벌어간 긴장된 일소관계의 중대성에비추어보아청진(淸津)상공회의소에서는륙일 긴급역원회를 열고 협의한결과 다음과가티

一、최근빈번히 발생하는 연해주에잇서서의 소련의 나포사건으로 볼보아 어업항로보호를 위하야유효적절한 처치를 취하도록 요로당국자에 간청

이라는 중대결의를 하야 조선총독 외무대신 기라오로차에전보를 쳣다

中堅青年을召集 時局認識을强調

來九月二十五、六兩日間에 京城에서大會開催

총독부에서는 현하시국중대성에비취여 각종각방면에 국민각오의 분기를 환기하야 진실한 내선일체와 거국일치를 기하도록 각종시설을 실시하야오든바이번에다시 전조선중견청년을 소집하야 대회를개최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인즉 시국에대한 인식을철저강화식혀서 널리이들청년을통하야 전조선 방방곡곡에게 국민지 진충보국의 적성을 밧치며 도이가운을 항구적교화운동에 웅기도록할터인데 대회는 대게다음과가티 열릴모양이다

名稱 全朝鮮中堅中年大會
主催 朝鮮敎化團體聯合會
期日 九月二十五、六日兩日間
會場 京城府民館
講演會場善隣商校
出席者資格 旣往地方中堅靑年講習會修了者

支人家專門의 窃盜團逮捕

륙일오후여섯시쯤 룡산서판내에서는 룡행이의 제육감으로지나이지만 절도혐의하는 사인조소년절도단을 발견한 사실이잇다 그는 부내 대흥정(大興町)에사는 강귀남(姜貴男)(一七)이라는 청년으로 동일오후네시쯤 부내신수정(新水町)팔십팔번지 압나무그늘에서 소년네명이 낫잠을자는것을 발견하고 그들을수상하게 역여 소년들이 잠이깨인후에도 미행하며 그들의행동을 감시하엿다 과연그들은 사인조소년절도단으로 절도음모를하고잇는것을 발견하고 거리의 탐정은 곳 소관 룡산서에알리여 무난히 체포하엿다는데 그일당은 경기도련천군(京畿道漣川郡)에 원적을두고 시내에 드러와 룡편으로잇는 절도전과일범 박세환(朴世煥)(二一)을 단장으로하야 룡편 남대영(南大榮)(一七)김학운(金學雲)(一五)로사룡(盧四龍)(一五)등네명으로 룡서에서는 취조한결과 지난칠월중순에 부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삼백칠십오번지 지나인집(桃志寬)집에서 『담배』엽갑 현금칠원시계등을 절취한것을비롯하야 부내각처에잇는 지나인집만 전문으로침입하야 십일건이나 절취한것이폭로되엿스며 여죄를계속엄중취조중이라한다

明日은白露

팔일은 음력팔월절 사월로백로(白露)절이다 사야에벼가 일제히발수되야 이삭마다 누러케어가서 황금의 물결이치고수수、조、강냉이 콩등도 익어서농가에서는 일년중 가장 깃분때이다 한여름동안 보리밥만먹다가 햇벼밥에 햇콩을노아먹게될도 여간 깃분일이아니거니와한여름동안 피땀을흘려 기며 김매여 각구어온 논파레오곡이풍등하야 바야흐로 거두어드리게되니 농가의깃븜이야 이보다더할것이업다 거두어드리게되면 장리벼니 지불명령이니하야 벗재축어 비빠지듯하는 령세농가에도 어때만은마음만이라도 평화스러히 보히는때이다

スポーツ

職業拳鬪明日로延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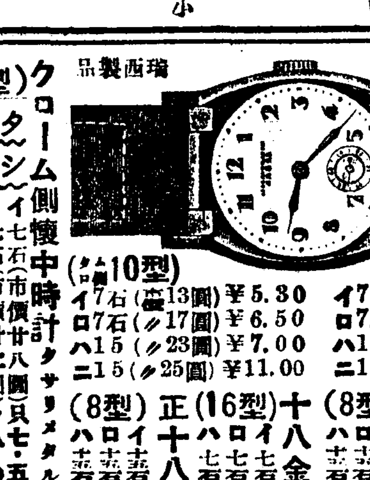
金恩擊對『싼소-니』와의 十回戰을『메인에벤트』로한 職業拳鬪戰은 今七日午後五時부터京城運動場 特設링에서 擧行할豫定이든바 이날降雨로因하야 하로를延期하야 明八日午後五時부터同場所에서 擧行하게로되엿다한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은今夜曇、小雨模樣 明日은曇後晴

昨日最高	二八度八
同 最低	一九度一
今朝最低	二〇度三
今日正午	一七度一

瑞西製品



クローム側懷中時計クサリメタル付 (16型)パンタマーシン
イ七石(市價廿八圓)只七·五〇
ロ七石(市價廿二圓)〃八·〇〇
ハ十五石(市價廿六圓)〃九·五〇
ニ十五石(市價廿九圓)〃一一·五〇

世界的標準時計

ウオルサム！★

瑞西特製品 時間正確！
クロム側懷中(16型)クサリメタル付
イ七石(市價九圓ノ品)只ノ三·三〇
ロ七石(市價十一圓品)〃四·六〇
ハ十七石(市價十三圓品)〃七·二〇
ニ十五石(市價廿三圓品)〃八·〇〇
ホ十五石(市價廿九圓品)〃九·五〇

十六型懷中 ウオルサム クローム側
イ7石(定價22圓)¥10.00
ロ7石(〃28圓)¥11.50
ハ7石(〃32圓)¥12.70
ニ7石(〃39圓)¥13.50
ホ15石(〃45圓)¥1.770
ヘ15石(〃47圓)¥19.80
ト15石(定價52圓)¥21.50
チ15石(〃57圓)¥23.80
リ15石(〃62圓)¥35.80
ヌ15石(〃66圓)¥38.00
ル17石(〃75圓)¥42.00
ヲ17石(〃8圓)¥50.00

(10型)
イ7石(定價13圓)¥5.30
ロ7石(〃17圓)¥6.50
ハ15(〃23圓)¥7.00
ニ15(〃25圓)¥11.00

十八金側高級腕卷 (8型)
十八金代用懷中時計 (16型)
十八金代用腕卷皮付 (8型)

(9型)
イ7石(定19圓)¥5.80
ロ7石(〃23圓)¥7.00
ハ15(〃25圓)¥8.50
ニ15(〃29圓)¥12.00

最新流行形
專用懷中 同業者整理品引受處分大特賣中!!
★鐵道

クローム十九型 鐵道時計
鉄佛捻 SEIKOSHA白文太文字
A七石入……¥18.00
B七石入……¥19.50
C七石入……¥2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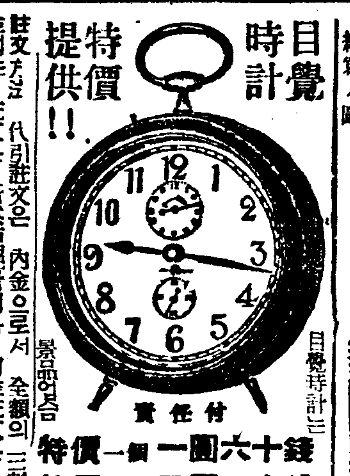
ウオルサム代用 國產精工舍製
クローム側十二型(キカイ十型)平三味胴型腕皮付
セイコー白字太文字
A七石入 ¥8.50
B七石入 ¥9.85
C十石入 ¥10.20
D十石入 ¥12.00
E十石入 ¥13.00

上記左右の二品은學生運動家、山員、鉛員、鐵道員、靑年紳士有志實業家諸君에게는무엇보다最適品이고또代價는市價보다三割以上廉價이다但特賣期間은九月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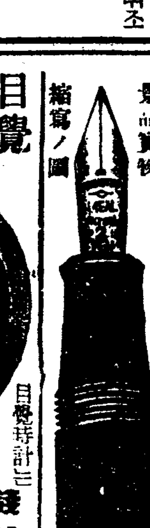
景品은 五圓以上注文하는분께 景品으로T·M·萬年筆一本식 贈呈한다

一般大衆向實用時計 ◎◎秋季新學期特別大賣出

目覺時計



實物縮寫ノ圖 景品實物



特價提供!! 責任付
特價一個 一圓六十錢
特價三個 四圓二十錢
特價半打 七圓八十錢
時間正確 機械秀巧
註文은前金으로代引은五割以上內金에要送料實費加算

註文方法 代引註文은 內金으로서 全額의三割以上拂込함을要 前金註文은 送料四十七錢 註文書又는振替東京一五七九四一番 セイコウシャ營業所로 拂込하시요
型錄請求는郵便切手十錢을要함
セイコウシャ營業所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一六 振替口座東京一五七、九四一番

朝報案內
支部 牧人相當一府一支部長募集이며 京城府…
軍手 製造…京城府…

官認 東亞無線技術研究所研究生募集
京城府鍾路…

生徒募集 京城測量技術講習所
▲科目、土地測量學、測量規定、法規、簿記、製圖、幾何圖法、數學、漢文、國語

推薦狀
慶尙北道道會議員立候補者 朴正純
今般善山郡道會議員補選에當하야 朴正純君을 最適任者로認하고玆에推薦하나이다
善山郡有權者一同白

タイル의用命은 DK代理店吉川洋行으로
品質優良、價格低廉
在庫品絕對豐富
タイル는 DK마—크에限함
洗面、手洗、便器 무엇이나具備해잇슴니다
一報次第技術員差遣相談에應합니다
東洋陶器株式會社特約店 セメント防水劑マノール代理店 淺野株式會社代理店
タイル問屋 吉川洋行 京城黃金町二丁目電停前 電話本局長七○六番

第84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學則要三錢切手
◎最近校舍新築大擴張(元實踐簿記學院改稱)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五、三六○番) (期後)

京城 生徒募集 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受驗準備) ◎學則要三錢切手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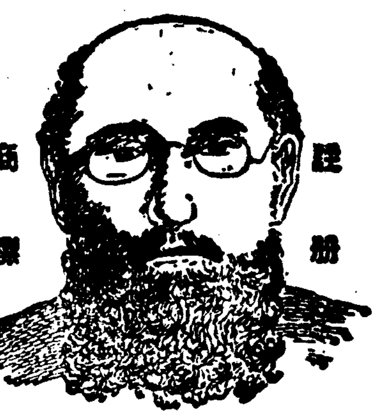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國光アイロン
婦人들의看過치못할家庭用品
◎東京市產業局推奬 各著名士、各女學校
◎便利함 고-도나고무管가튼것이업기때문에언재던지任意의場所에서손쉽게쓸수잇습니다
◎經濟됨 燃料費는電氣의十分之一로서充分하고炭火보담도혈하게쓸수잇습니다
◎安全함 感電·瓦斯漏等의걱정업고또炭火가치衣服을더럽힐念慮이絕對로업습니다
百聞不如一見
製作發賣元 東京 國光商事社
臨時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二 電話本局(2)四○四三
○特約店募集 申込次第社員直接相談에應하게습니다

문동병엔 神脈丸
○癩患者여服用하라!!
○新生의기쁨을어드리라
大明堂製藥合資會社 江原道江陵邑 (說明書請求하면無料送)
振替京城七七四一番 私書函江陵十二番

아푸거나·쓰리지안코·爽快하게잘듯는

대학목약



大學目藥

半島의舞姬 **崔承喜孃**曰

名眸의秘訣은大學目藥의愛用에잇습니다、同胞諸孃이여 彼此에 아름다운强한눈을가집시다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 龍藏氏
醫學博士 吉田 蕃治氏
醫學博士 山中 崔之氏
醫學博士 豊田 正達氏
推奬

流류線선型형容용器긔

스마―트하고便利한自動點眼容器―

體千兩 目九百兩

눈의治療에힘쓰라

眼疾原因의거의全部가 不潔과 榮養不良에잇습니다、塵埃와 煤煙과 때에더러운얼골과 눈을씻지안커나더러운손으로 눈을문지르거가해서 眼疾이생깁니다、太陽의强한紫外線과 컴컴한電燈下에서 일을하거나 細微한文字를읽거나하는일로해서도 눈은 疲勞하야 弱해집니다、눈이붉어지거나 눈곱이끼거나 좀아푸거나할때에 곳治療를加하면病이되지안코 말것이라도 治療를 加하지안코버려두는故로病이되는것이며病이된뒤에는 治療가길게끄는것입니다

眞正한 治療法과

눈을强하고곱게하는法

眼疾의眞正한治療法은 于先大學洗眼藥(目藥에添付)一錠을곱부半分의 熱湯에녹여서 시킨뒤에 까―제에 적시어눈의안팟을 輕하게 몃번이고 씻습니다、다음에大學目藥二三滴을 點眼합니다、이것을 每日三回 꾸준히 繼續하면지금까지좀처럼낫지안튼眼疾도顯著히快差해갑니다。

또、지금은눈이나뿌지안트래도 每日豫防해두면眼疾이되지안코맙니다、그것은 每朝洗面後에大學目藥을一二滴點眼하면고만입니다、아츰엔 눈곱이끼고해서第一不潔할때오니 每朝點眼하시면 언제나 强하고 고운눈을保有할수잇습니다、特히婦人의美眼法으로는이것이第一입니다。

大學은 權威잇는

世界的高級眼科藥

大學은眼科醫學의泰斗五大博士의推奬하시는바 治療力이極히强한目藥으로殺菌、防腐、收斂의効果와專賣特許製劑우르비올레긴이라는 紫外線防止藥까지配劑되엿는故로 단한가지로實로左의세가지作用을가젓습니다。

一、眼疾을速히治癒하는힘
二、눈을아름다웁게하는힘
三、紫外線의害를防止하는힘

따라서眼疾이잇는분이쓰시면速히回復하고、健眼하신분이쓰시면强한눈·고운눈이되고、老人이쓰시면視力이回復되고바다와山에서쓰면紫外線의害를밧지안코맙니다。

아이들에겐小兒用大學目藥

大學目藥은조금도아푸거나쓰리지안코써 爽快한氣分을주는故로아이들에게쓸지라도괜찬습니다마는 十歲以下의小兒에게는小兒의눈에맛게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

硼酸보다나흔大學洗眼藥

大學洗眼藥은 最新殺菌藥너이보르미친을主藥을삼은强力한消毒力과治療力과點眼藥의作用을돕는 効果가잇는洗眼藥입니다 大學獨特의創製品으로完全消毒싸니레―프包裝을하야大學目藥一瓶마다添付하엿습니다 不足하시거든洗眼藥만의賣品도잇습니다

適應症

○유행안질 ○[illegible] ○淚眼 ○도라홈 ○血目 ○疲勞眼 ○다락기 ○參粒腫 ○結膜炎 ○쑤시는눈 ○[illegible] ○흐린눈 ○光線眼炎 ○[illegible] ○打目 ○상한눈 ○갑한눈 ○진안질

定價

鼈甲케―스付入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케―스는一圓)	五十錢
洗眼用特大瓶付(圓)	一圓
케―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大學洗眼藥	
十錠	十錢
廿一錠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家庭

젊은내외간에도 말법절은직힐일

지나친아양에서나오기쉬운반말 남압헤서는경어를쓰자

신식이면 모두가 금과옥조요 구식이면 모두쓰레기통에 너허도 앗갑지안타는데는시절의 탓이라할말이업지만 신식도 벌서우리사회에 신용화가 드려오지 반세기가 갓까우니 지금은신식에도 어색한신식은 꼿치고 무슨전통과 체계를세우라고 노력하는것이 조흘줄압니다.

말은 하잘것업스나 첫재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실행하는것이엇덜가요 옛날가튼면 서로말도못하고 붓그러워하며 엄격해야할 젊은부부사이에 지금은 소위부터이란것이 지나처서 남편을극진히 섬기는한편 남편의환심을 사기위하야아양까지를 가미해야한다니 이것은조곰 지내친것갓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연근거업는일은아닙니다마는 남이듯고보기에 눈꼴이 틀리도록지나치게 구는것은생각할여지가 잇슬것입니다

가령 그들의대화를드르면『난실혀』라던지 요새말로하면 모-던이요 아양이뚝뚝뜻는말씨를꼬잘쓰는데 옛날로하면 이래서 깨소곰가티아깃자깃할지는모르나 어것은 가정부인들의 일상어로는 대단히 질이나즌편입니다.

이러한아양조를 너허서남편을섬기지안흐면 안된다는 남성이잇다면 그남편는단연리혼을해버리여도 조흡니다.

거리의계집들에게서 듯든그말씨를 자기안해에게서 드르랴하고 가정과 거리를혼동시키는죄는 실로크다고볼수잇습니다.

그리고 이러케 야비한아양조가튼것은 가정 풍기가업숙을일흠은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대단히조치못한영향을 주는것입니다. 점잔흔말과경어 놉쓰고도 달콤하고산뜻한애정을표현하며 각각할수가 얼마던지 잇지안습니까?

말씨가튼것은 엇더케해도그다지 큰관계가 업스리라고생각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친구를 사귀는데도 말씨를꿍경하고 정중케 대하므로참된교제가 기리기리 계속되거늘 황차 부부간의 말니까?

백화점가튼데 물건사러가서 남편이끌려주는 물건을『이게뭐야 난실혀』하고 가장아양을 떠는것을 볼수잇습니다 그러한 여자는 아모리 제자신이 행복된 가정부인이란것을 자랑하야도 벌서 그들부부사이에는 가을바람이 숨어잇슴을 알수잇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양이낫고 가정부인학의 초보도 알지못하는것입니다.

자기의사에맛지안터라도 전면으로 이러케 부정하기보담『다시차저보고업스면 어게라도조치요』하는 정도의 존경과 례의는알어야할것입니다 더욱사는 물건이남의집에보낼선물일경우에는『이런것은 그집에 적당치안흘지도모릅니다』하면 듯는남편도 조흘것이며 남편도 어색지안흘것이아닙니까

그러나 범사가모두 지나치게점잔코 례의만을직히라는말은아닙니다

남성의심리라는 것은 언제던지 녀성에게 미듬을밧고시퍼하며 녀성의 일을부탁밧고시퍼하는근성이 잇는동시에 녀성이 가장 연약하게 남성의 힘을 빌려오는것을 조회합니다

그러므로 때와장소에 따러서는 조곰달콤하게 해보는것도 조흡니다.

그러나 남이보고 듯는가운데 서는 절대로 삼가지안호면안됩니다。

남편이 안해를부를때『어이』라는 비렬한말은 말기로합시다 그리고『정숙이』하고 안해의일홈을 부르는데도 애정한표시가되면 조호나 아이들듯기에 조곰어색하니『여보』하는정도로 온순하게 부르는것이 조흘것갓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언해를깔보고 말씨를 주의하지안호면 안해의 감정도감정이려니와 밧게나가서 여러사람아페서라도 그냥말씨를 삼

모기장도 간수해둘때입니다

먼저세탁을잘해두서요

모기장을 한여름동안 치고나면 풀이죽고 누기가차고하니까 빨것은빨고 그대로둘것은 그대로 챙겨두어야되겟지요——

때기 몹시란것은 물가룰세탁을해야할께니까 목욕통만한큰그릇하나를 위선준비해야합니다。(세수대야로는 어림도업습니다) 먼저 물을따듯한정도로 데우고 가루비누를풀고 두사람이 도구통이식을 맛잡고 첨벙첨벙흔드러빱니다。다른빨래처럼 문지르거나 비볏다가는버립니다。때가빠지거든 맑은물에 몃번이고헹굽니다。헹군것을 건저서는 쥐어짜지말고 그대로 줄에걸처노으십시요 사오십분 그대로두면 물이 쪽빠지게될것어니까 그때는 마당에서 기둥이나 나무에 네구퉁이를치고 정작모기장치드시 펴가지고 말립니다。그런데 물끼가 다마르기전에 풀을 알마케푸러 귀알에찍어서 안쪽으로발다 풀을빼입니다。

만약에 빠라서 빗치빠질상십흔것은 빨기전에 크다란대야에 물을떠노코 조산(醋酸)을 차사시로 하나쯤탄데다가 당것다가 빨면 보기숭하게 빗치빠지지안습니다。

세탁안해도조흘것은 이、삼일동안 날조흔날 바람을쐬여 습기를 업시한다음 잘접고、나후타린을너코 신문지로 한벌잘싼니다。그리고는 다시 좀더두꺼운조히로싸서두면됩니다。세탁한것도 다마른뒤에 이가티해서간수합니다。

역시류행을따른 애기들의양복

『불란서식』이란것은벌서뒤진것다

금년가을 어린이 양복과 모자 구두양말시세를 아라보앗습니다。

갑을알기전에 여기에도 금년가을류행이란것이 엇다는것을말하지안흘수업습니다。사나히양복은 작년가을부터 류행하던 소위불란서식이란것은업서지고 단연스헤칼라한것이며 녀자용은 빗갈에나라나는데 누르빗갈계통의것으로 국방색이 주장되여잇습니다。

갑은 아조어린아이——즉빼이비용으로는 네루로만든것이 사십전부터륙십오전까지잇고 본견으로한것은 일원이십전부터사원까지잇습니다 남자용으로 라사제품은 유저원아이들입울것으로 일원사십전부터 팔원까지잇는데 삼원이상이면 모다세루나 라샤제품입니다。

모자는 빼이비용으로 벨베르그제품이 이십전부터이고 본견으로 일원이십전부터까지잇스며 삼사세용은 삼십전부터 어원사십전까지잇는데 팔십전이상은 모다라샤제품으로 류행하는것은 단연해군식이주장이며 캡도호간잇스며 녀자용은 빗갈이지른자주가 중심이되여 푸로페라 모양으로조각이 부터잇습니다 이것도아마금년의 정치적정세를 반영한것일가합니다

그다음으로 어린애양말은 크고 적은데 따라서갑시 달른데 삼십전이상이면 절로만든것을볼수잇습니다 아조빈싼것이 칠십전내외며 빗갈은 제마음대로여거는 류행이잇지안습니다

구두는 위기 가죽어요바다이고무인것은 륙십전부터 팔십전까지잇고 가죽으로한것은 일원이십전부터 륙원까지잇는데 륙원내외의것은 아조멋진 에나멜로지은것입니다

갓난애기용은 전부가 꿋신이란것인데 붉은라샤로 목이짧은단화는 삼십전으로 부터잇고일원내외면 장화가됩니다。

금년가을엔 조곰더 가을이거퍼지면 아마갑시 조곰올너갈것갓습니다 모직갑시 비싸진데따라 이것도 오르지안코는못백이는모양입니다 지금쯤은 여러곳에서 아즉올리지못하고 눈치만살피며 방황하고잇스니 사시랴면 지금곳사시는것이 덕이될것갓습니다

≫≫물ㅅ가혼란시대≪≪

축음기와사진기

의례비싸젓스려니하겟지만 전보다더싸게사는수도잇다

지난달 십이일 창졸간에실시된 물품특별세(物品特別稅)의 영향을바더 사진기게와 축음기의갑은 엇더케 되엿슬가?

사진기거나 축음기는 모다가 제이종(第二種)인까닭에 십이일이후에 만드러진 물건에만 적용되고 판매점에서 보난해가지고잇던것에는 절대로세금이 붓지안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조흔신용잇는가게라면 전에가지고 잇던물건은 그전과조곰도 다름업는갑으로 팔것이나 보통판매점에는 세금이 붓지안하보편물에까지 중세를구실로빗찬갑을부처팔것은사실입니다

그리하야 신용잇는 가가에서 사는것이 덕되리라고생각하는것이 상식인데 반듯시 그러치만은안습니다 신용잇고 큰상점에서는 어느정도까지 정가(正札)을고집할것이나 보통소매상점에서는 어도한 물건이라는 방법이잇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정찰대로 파는집에서사는것이 더이나 가격인상(價格引上)을 의할인가것이 헐하나하는것은 간단히말할수업스며 원례엇반소매점가격은 여러가지로 모다달를면만흔 각자의타산여하에 가격이결정될것이므로 당분간 사진기와 축음기의가격은 혼란되여잇스니 사는사람의수단 여하에달렷습니다。

사진기와 축음기 빗싸졋다고만 떠들고 그냥덥모르고사면 심엄슨 손해를볼것입니다。

영양분만흔식료품으로는 요새도마도가제일

겨울까지먹자면집을냅시요

토마토가 한창입니다。토마토는 화초심으듯시 두서너포기심심푸리로 심은것이 그냥 작고 열어서 원여를 반찬으로쓰고도 지금쯤은 조롱조롱 열려서 민주를 대일것입니다 만약이러케 도마도가 자기집에잇스면 그것을쓰는것이조코 업스면 산대자 헐한때임으로 돈이얼마들지안을겝니다。

밍밍하고 아니꼽다하야 천대하는분이만호나 알고보면 요지음 식료품으로서 영양분이제일만흔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제철한철만 먹지말고 엇더케이것을 오래두고 겨울에라도 먹을수잇게해 보시지요

토마토를 생생한놈으로골너서 끌는물에너코 한개식한개식건질을 벗깁니다

그리하야 여기에다가 밍밍한 소금물을타서붓고 병에너허두면 오래두고 먹을수가잇습니다

아마명넌봄까지는 염려업시저장이될겝니다。

그다음에는 토마토를솟테너코 찔만한 대통에너허서 그미레 그릇을밧치고 솟테찌면 토마토 즙(汁)이 그릇속에흘너내립니다 즙이난다음 나머지찌께기는 한불을뒤너서짜서 먼저흘너내린즙은 다시한번솟조이도록 조려서 나중짜낸즙과석거서 병에너코공기를통하지안케 두면됩니다 서양서는이번이방법으로만든도마도즙을『도마토쀼ー레』라고 하야사시로 수ー프와 소ー스며 카레ー로쓰는것입니다、하필서양사람의본을떠서가안이라 우리네가정에서도 가장간단하게 만들수잇고 돈도적게들며、자양분이만흔 음식이니 한번시험해보는것이엇더할가요

신사용겨울구두

빗츤초콜레잇ㆍ뭉둑한코 작년보다갑시삼할이나울라

일용백품이 모다올너잇는데 구두갑이라고 안오를리가 잇겟습니까 그런데 금년가을 신사구두갑은 작년가을에비하야 삼할가량이나 올넛스며 금년봄에비교하면 일할가량비싸젓습니다。

신사구두로 겨우신을만한것이 최저십일원으로부터 이십오원가량되는데 작년에 한창류행하든 귀공자들의 애용품인〃고도반〃은금년에 드러서는 만히 신지안흐나 원료의 수입관계로 이것은이십오륙원으로 뛰여올랏습니다。

그리고 류행은 별로변한것이업스나 대체로 신흥적인것에흐르고잇습니다

첫재 바닥이 몹시 넓어진것과 뒤굽이 노파저서 훨신 안정된감을주는것이 금년가을의특징적인 경향입니다。

빗갈은 단연 초코래트색으로 거문것은 벌서 뒤진갑이잇습니다。

모양은 이상하게도 대정십이삼년도쯤올너가서 류행되든 코굽은 구두가 어디서 어떠케금년가을류행으로 새로등장된것입니다。

녀자구두로서 전번에도 이야기하엿지마는 금년가을 서울의 류행은 빗갈이 하날비츠로 옷감류행에서말한 저고리빗갈보담 조곰더 맹낭하야 순진한 하날비츠도 모양은 굽이 노프면서도 까라안즌것。다시말하면 빈틈업는수직(垂直)의안정을 가저오는동시에 구두등에는 굵직한 밴드가매이고 끈대신으로 흰가죽으로 끈처럼부처서 다섯개를 느려노된 아조균형이 서게한것이며 발등이 러더피게한것입니다 갑은 팔원에서부터 십구원좌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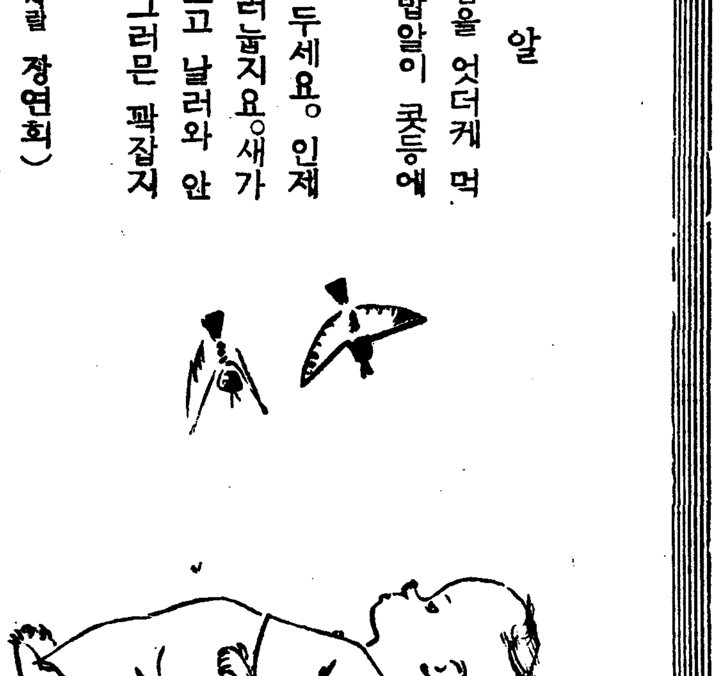
우리차지

밥알

『애 밥을 엇더케 먹엇길래 밥알이 콧등에 부텃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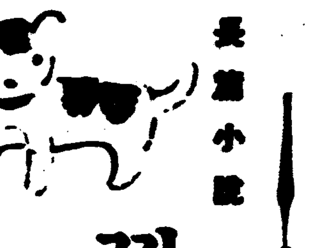
『가만 두세요。인제 벌떡 드러눕지요。새가 밥풀을보고 날러와 안꺼든요。그러믄 팍잡지요』

(금순사람 정연희)



長篇小說 찔레꽃 【114】

金末峰 作 金鏞超 畵



찔레꽃 一

『정말나를 사랑하서요? 정순이보다?』

하고 민수의귀가에서 속삭이는 경애의 딸기가슴안입술은 바르르안흘떼이처럼 뜨거웟다

『경애씨-난 지금 고백합니다 맨첨 당신의발음발는 그날저녁부터 당신을 이저본때는업섯서요……말이뛰어다라날때』

민수는 잣가밥을 끈헛다가 감개무량한듯이

『……왜내가 내생명의귀한것을 몰랏겟서요?……나는 경애씨를 구하지못하면 가리죽어버릴 결심이엇서요』

하고 경애의 얇은엇개가 부서저라하고 끼어안엇다。

민수의힘잇는 포옹속에 안기워잇든 경애는 감격에넘처 흑흑소리를내여 늣기기 시작하엿다

『나와결혼해 주시렵니가? 경애씨!나는 아시다십히 간난한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은……』

『민수씨! 그럼 우리이길로가서 아버지를 맛나뵙시다 그리고 옵바에게도 그럿케 선언을해버리면 정순이도 옵바와 결혼하고 말것안야요?』

민수는 빙그레우스며 고개를끄덕엿스나 사랑의가면을 쓰고복수의 제일보를 내디딘 민수의가슴속은 물과불이 뒤끌튼 화산속가티 어즈러웟다

『아버지께는 저가말슴을 엿줄테니깐요……정순이에게는 민수씨가 제절맛나보시고 저와약혼하엿다는것을 말슴해주시겟세요』

하고 경애가 방그레우섯다

『그야 쉬운일이조 머지금이라도 댁으로가서 정순씨를 맛나볼가요?』

하고 민수는 반쯤몸을 이르켜 보엿다。

『지금이 식전이신데……그럼 이길로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 경애는 이러서서 벽에걸린 민수의외투를 내려놋코 모자도집어 민수의아프로 노아준다

두사람은 나라니 문밧그로나왓다 길에는 세배군일은 전차가 붉은기를날리면서 바쁘게 굴러가는것이 맛치 자기들을 축복하는 현상과가티 느끼는 경애는 민수에게

『오날이 신년이야요 과세안녕하섯세요?』

소군거리고 방그래우섯다。

조만호씨집이 점점 갓가워올사록 민수의가슴은 깨저질듯이설레엿다 다만마드로 정순의심장을 에리한칼로 뚤바돗이 번지즉맘을 맘속으로 차즈면서 민수는 경애의집 현관으로 드러섯다。

『그러면서 제방으로 가서요 네?』

경애는 아무때도 끼될것업는듯이 민수의한팔을끼고 풍편으로 돌린 복도를향하얏다。

경애는 민수와함께 자기방으로드러오자 외투와모자를바더 한편에놋코는 민수의동에다 얼굴을실으며

『그럼 잠간만게서요』

하고 중기스틱 갓기히 노힌 교의로 민수를안친뒤에 밧그로나갓다

정순은 새옷을가라입은 아이들과함께 루다(서양옷노리)를하고잇스면서도 그는 경애가 민수를대림고간것을 생각할때 참을수업시 가슴이 두근거렷다

『내기막 무슨방해를 노는것처럼 생각을하면 엇더커나』

하고 얼굴을 찡호리다가도

『임의 흑백이드러난이상 민수씨에게 자기와 결혼하도록한번더 다저볼가?』

하는생각도 지내갓다。

『하지만 그이가 꿋꿋내 듯지안는다면?』

정순은 핑그르르 눈물이도는눈으로 창밧을 바라볼때다。

『이봐 정순이』

하고 손직하는경애와 눈이마조첫다。

정순은 가슴이 선뜩하여지는채로 복도로나왓다 경애는 방글방글우스며

『저ー민수씨가 아직 식전이라는데 주방에 우유와 게란이잇스니까 그걸좀 갓다주어요 심부럼을식혀 미안하지만 그이가 꼭 정순이를맛나서 할말이잇데요』

하고 정순의엇개를 툭치고 저편으로 가버렷다

정순은 그사이 어멈이데워논우유와 반숙한게란을 그릇에담아 쟁반에 밧처들엇스나 그의두팔은 후들후들집서업시 떨리는것을 억지할수업섯다

녹크도업시 사르르 문을열고경애방으로드러선 정순은 두팔로 팔장을낀채 지긋이 눈을감고잇는 민수를 바라보자 그는쟁반을 살그머니 테ー블에 내려놋코는 잠자코 민수겻흐로 갓가히갓다

정순이가 드러온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수는 그저눈을감은양 붓처가티 안저잇는것이다。

『식기전에 좀잡수서요』

하고 정순이가 가만히 민수의 한편엇개를 흔드럿다 순간 민수는

『물러서요』

하고 눈을부릅뜨며 정순은 억지로 방그래우스며

『오날 경구씨에게도 드러보시면 아실겝니다만 전 결단코 경구씨를 사랑하지는 안흐니깐요 난 언제나 민수씨당신만 생각하고 잇습니다』

잡잡한채 정순을 흘겨보는 민수의눈은 증오와모멸로 칼날갓치 날이섯다

『정순씨! 과거는 엇지되엿든 그것을 말할것은업구요 난오날경애씨와 정식으로 약혼햇스니 그러케 아라주시요』

말을맛친 민수는 여전히 팔장을낀채 또다시 눈을감아버린다

『민수씨!』

하고 불른정순은 자기의울성이 울음에 갓가울도록 떨리는것어 딱하엿다

『경애씨와 약혼을 하섯다구요?……추 축…하 합니다』

정순은 도망하듯이 그방을 뛰어나왓다

이층 경구의방에서 내려오든경애는 복도에서 조희빗스로 얼골이 창백해진 정순과 마조처자 그는 정순의뒤를 따라오며

『옵바가 저ー경구옵바가 지금 정순일 기다리고잇는데……』

하고 나즈막이 소군 거렷스나 정순은 갑작이 귀먹어리나되듯 어 한마듸의 대답도업시 자기방으로 드러가 버렷다

安産 키爲하야!

楢林醫學博士 監査
片瀨醫學博士 推奬

カルシューム時代를建設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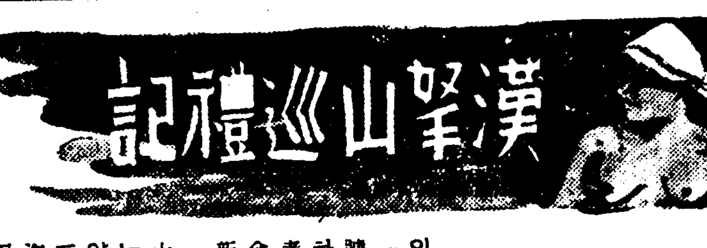
自古로 難産에는 高價인鹿茸가루를 服用하엿사온바 此鹿茸의 主成分은 カルシューム어외다 ワタカルシューム錠은鹿茸과한가지로カルシューム를主劑로하야 거기에 數種의 高貴藥을 配合한것임으로 姙婦와産婦가 이약을 服用하시면 安産은 問題업시됩니다 俗談에 産婦가 産室에들어갈때에 自己의신어든 신을도라보며『저신을 내가 다시 신게될가?』하는人生最大의 걱정은 問題업시 解消됩니다

健全한玉童子는! 健全한母體로부터! 健全한母體를맨들기爲하야는—母體의健康素로도되며、胎兒의發育素로도되는 ワタカルシューム錠의連續愛用이安産秘訣의第一急務!

片瀨醫學博士述『安産키爲하야』란冊子無代進呈

大阪道修町 和田卯助商店

ワダカルシューム錠
(와다칼루슘)



(8) 山 (8) 篇 (三)

蓬廬觀의 觀音寺
—道傍俯伏의 俗과 山川壇—

李殷相

杜工部의 詩에 『方丈三韓外』라 하엿고 韋孝標의 送金可紀歸新羅詩에 『潮淨三山出海心』이라하얏스며、또한 南海郡二東面良河里와 이곳濟州島의 西歸浦、朝天浦等處에 徐市過之의 石刻이 잇다고하야 中國神仙傳說의 最高最大한 者라할

三神山不死藥은 分明히 朝鮮을 指稱한것이라고 解釋하여 오는것이 通例로되어잇스나、果然 秦皇求藥과 秦皇漢武의 理想鄕이 朝鮮이엇스며 朝鮮에서도 이 濟州島漢拏山이 그三者의 一이엇던 與否는 이제 對答할사람 업슴이 恨되거니와 나는 여기 이섬、이山이 三神山의 하나이건 아니건、헤아릴것업시 우리의 거룩한山岳、神秘한 靈場으로생각하야 感激할다름이다

우리의 行軍드림은 山下를 向하야 가까이 들어간다。壯快한 氣慨를 보는이 업슴이 못내 섭섭한데 마침 한사나이 길가에 섯다가 우리드림어 지나가자 땅에엎디어 절하며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른아춤 무엇하는 사나이가 저러케 절을하느냐하고 一行은 異常히여긴다。문득 黑會되는 耽羅國俗의 一節—『男女逢官人於道、女則奔匿、男則必俯伏道傍』아마 이사나이가 道傍에서 俯伏不起하는것이 우리를 官人行次로나 본것이 아닌가。毋論 이사나이 不學無識한 愚氓일것은 두말할것업거니와、그러치로 聖山巡禮의길에 오른 우리들을 보아줌이 어떠케나 고마우냥 그러나 다시 생각하매 저사나히는 이靈山속에서 살고잇는 사람인지라 어깨가 으쓱하기로야 저가 우리보다 더할것이니 마땅히 우리가 저사나이에게 敬拜를 드림이 올흘것이다。

樹左館右에 靑鳳黃鳳이 하는 洞府은 다시한번 「온」의 理想鄕을 깨닷게하는 一方 여기서 우리는 俗世衆生의 許多한 煩惱를 어서버리라는 命令을 듯는듯하다。

얼마아니하야 길을 바른편으로 꺽거 灌郞라는 幽谷을 따라 드러가면 天成의 虹霓門과 그아래 넓은 盤石 이를하되 訪仙門 鶴仙臺라하는 勝景이 잇다고하나 路程이 다를으므로그냥지나고 山川壇에 이를엇다

濟州漢拏山神祭壇法堂이라門板잇으로 들어서니 堂內에는 戲遊光如來와 濟遊靈定那許尊者의 位牌를 모신 小林堂이라는 一堂宇가 잇다。

이는 例에 依하야 우리古敎와 佛敎의 混淆된 形態어이와 이堂宇가 山川堂이은 다시말할것이업고 俗에 「三天堂」이라고도 쓴다함을 들으니 여기 그本質本色의 瞭然함을 넉넉히 짐작하겟다。

本是 漢拏山神을 奉安한山川壇은 저山上에 잇던것이다 高麗高宗四十年(西紀一二五三)의 記錄을 據하면 漢拏山神을 『濟民』이라封하고 春秋로 致祭하든것이엇스나 山上行祭에 往往凍死의 不幸을 보게되므로 李朝成宗朝에 牧使李約東이 이곳으로 奉安하고 山川壇이라이름한것이다。

凍死之苦도 事實이지는 모르나 어는 때가 祭祀不潔하려니와 일로 보는것이 正當하려니와 靈感의 疑心이 때 어마한것도

아춤 어슬을 아까이 밟으면서 三義讓氏이라 부르는 山을 외편으로 끼고 돌아들어 가다가 『궤진』라는 山村을 樹林사이에 보게된다。그러나 마을이라 부르니 마을이지 戶數는 實로 三三家! 어떠케나 寂寞한 活生이냥 이야가 소리와 밭자국 소리조차 쉬조심히 지나갈것이다。

『궤진』를 거처 藥師峰時節에 靈峯을 치덕으인 石壇을 넘어 觀音寺라는 처음庵子를 만나다。

이觀音寺는 蓬廬觀이라는 比丘尼의 創建인데 그는 일즉 佛敎의 篤信者이엇다。

俗姓은 安氏로 本是土人이더니 丁未九月에(或云十一月二十八日)出家의 뜻을품고 海南大興寺晦峰和尙에게나아가 薙髮受戒하고 明年正月에(或云五月五日)돌아와 佛法을 宣布코저햇스나 島民一般의 逼迫이 極甚하야 드디어 그야말로『天地無家客 東西未定巢』의몸이 되엇다。

不得已 그는 漢拏山 白鹿潭으로 몸을숨기고 七日이나 絶食하고 飢渴에 떨어젓더니 異常하게도 鶴髮老翁이 救出하야 衣食을물어 老翁이 나타나 『저山川壇으로 나려가라』하는지라 다시 發心하야 山川壇으로 나려왓더니 至大願이라는 異僧이잇서 「오래기다렷더니 이제야본다」하며 다시 發願할법을 내어준다。

다시 明年에 里巷에서 財하야 草庵數間을 이루엇다가 또다시明年에 靈峰和尙과 安道月處士等이 浮海하야 本土에이르면서 龍華寺의 佛像과 各種畫等을 侍來하엿스므로 반가이어떠 奉安하야 明年九月에 法井庵이라것을 創建하엿다。

그러하엿스나 島民은 依然히 排斥하려하엿는데 明年四月에 樵石의暴行에도 傷處가 無有한 奇蹟으로 因하야 드디어 服從케되어 여기 다 觀音寺를 이룩하게되엇이라 함이 이절의 創建插話다。(蓬廬山人觀音寺事蹟記)

이가티歷史는 비록짧고、堂宇는비록 볼것업스되 여기얼킨 傳說味나는 事實이 재미잇기로여기서 잠깐 쉬기로한다。(사진은 觀音寺)

▲正誤=前回分中에 第五段第一行은 第五行의 誤植입니다

學藝

『朝鮮語漢文讀本』의 改定과 漢文課程廢止에 對하야 (中)

咸大勳

以上과가튼 理由로 吾人은 이 國語式漢文의 統一을 反對하는바어니와 둘재로는 高等普通學校規程第十一條가 말하는것과가티 『朝鮮語漢文은 普通의 言語、文章을 了解하고 正確且自由로히 思想을 表現하는能을엇게하고 文學上의 趣味를 養成하고 兼하야 知德의啓發에 資할것을 要旨로한다』고한것과 第二項이말하는것가티 『朝鮮語漢文은 普通의 朝鮮文及 平易한漢文을 講讀케하야 實用簡易한 朝鮮文을 짓케하고 또 朝鮮語文法의 大要를 가르칠것』이라는 主旨가 全然 沒覺되는 點으로 反對한다。勿論 第七條의 朝鮮語及漢文中『朝鮮語』로改하고」第十一條 第一項及 第二項中『朝鮮語及漢文』을『朝鮮語』로改하고 同條第二項中『及平易한漢文을削한다』고햇스니 漢文이업시 朝鮮語로서만도 그目的을 達할수 잇슬것으로 생각한것이지만 그것은 朝鮮文이 오래人동안 漢文과 隔離식혀서 存在할수업슬만치 普遍化되엇기때문에 萬一에 朝鮮語漢文中에서『漢文을削하고』는 到底히 所期의 目的、말하자면 第十一條가말하는『普通言語、文章을了解하고 正確且自由로운 思想을 表現할수도』업슬것이고 또『文學上의 趣味도 知德의啓發에도 資하기는』困難할것이고 나아가서는 이漢文의 廢止로써오는 朝鮮말에까지 그影響이 클것은 吾人이 斷言하지 안어도 누구나 首肯할수잇는 問題라고 볼수잇는것이다。

다시말하거니와 只今까지의 朝鮮語漢文時間을 가지고도 그것이 未充分하다할수업는것은 一一히 그例를 들지안어도 우리가 日常目睹하는바이지만 萬一 이것이 實施된後면 그것이 더욱

다。이제只今까지의 高普各學年의 國語及漢文과 朝鮮語及漢文의 時間을參考삼아 比較해보아도 國語及漢文은 第一學年에 七 第二學年에 七、第三學年에六第四學年에 五、第五學年에 五時間인데 朝鮮語及漢文은第一學年에 三 第二學年에二 第三學年에 二 第四學年에三 第五學年에二時間으로 元來부터 國語及漢文보다 一週日 四時間乃至五時間이 적기때문에 이것으로만도 朝鮮語及漢文을 배울時間이 적엇슴으로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하고도 朝鮮文편지한장을 제대로 쓰지못하는 悲劇을演出하엿거든 하물며 이적은 時間을 더주려버린다면 果然 朝鮮人은 朝鮮말을 몰으는 날이잇슬지도 모른다。大學까지卒業해도 能히쓰고읽을만한 實力을못가지는 外國語도實用을 爲해서 그어려운難關을突破토록 强制하면서 日常使用하는 言語 그것을배우는데무엇이 過重한負擔이라고

何必 朝鮮語漢文만을 廢止할것인가?

우리는 和食도 洋食도 먹을수잇다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게 異常히 조흔맛을준다。더구나 外地를 단여본사람은알것이지만 그飮食、그風光이 아모리 조터라도 故鄕山川을 볼때는 거기에는 끗업는 반가운 鄕愁가 서리인다 그와마찬가지로 朝鮮語漢文 그것이 오허려 우리들의 말과글에 使用되여오든것인 만큼 거기는 끈어버릴수업는愛着과 鄕土色이잇고 안윽한親和力이 잇는것이다。

漢詩募集

題 秋夕

押 明

期 九月十五日

倫理問題의 새吟味
—現代휴메니슴의本質— (三)

白鐵

文學의倫理는 몬저말한바와가티 文學의 基本精神이요 生命的인問題인데 우리文學의傳統이그와가티 倫理떠난 或은그것과背馳되는非倫理의 態度엿스노라 여기에 우리傳統力그것으로서 近代的인 文學을입을수업고 또 아무倫理的인準備가업시 西歐의文學을바더드릴때에 그西歐文學이 順調롭게 우리文學으로서 揚棄될수는업섯슬것이다。그것은 西歐文學을 輸入한우리文學이 그西歐文學의 倫理를참되게 理解하야 우리文學의主體로삼지못햇다는意味以前에서 무엇보다도近代의모든文學主流와 文學方法을받어드리는態度에잇서서 우리들은 가장 非倫理的이엇고 基本的으로 이어니엇스리요!

現代의 모든創作方法問題를 가저오되 그創作方法問題는 우리들의 創造가 아니고 他人의것인바에야 우리들은 그것을 機械的으로 信賴하기前에 몬저그 아페에 懷疑를提出하고 스스로 自己矛盾을 發見함으로서 한번은 反省、苦憫의 時期를가질것이 아니엇스리요! 文學을探求하로 참된文學的精神이 缺如되엇고 바터드ᆞ리아리즘의道를 가저오되 그리아리즘은 이 一方에 잇서 旣明旣知의것인즉 그것에 대하야 한번은 反逆함으로서別個의 적어도 特殊한리아리즘을 일어서야할것인데 그러치못하고 文學을創造하는 本格的精神이 旣明的인것에 對한 하나의 反逆의 情熱이어늘 根本的인그 倫理의態度를 無視하고 모든文學主流와方法을 輸入해成功할수 가업스며 同時에도라와서 所謂 現代的必要下에서 文學의遺産問題를 討論할수업는 事實이엇다。

文學遺産을 繼承하는 問題에 잇서도 우리文壇人은 極히 單純한 생각을 가지고잇는듯하다 文學遺産이라것은 決코現代스포—츠의 리레—競走의 밤부—交換과가티 單純한것은 아닐것이다。文學遺産을 계승하는方法에 잇서 첫재의認識은 過去의傳統을 現代에 그대로가저다살녀갈것만을 問題하는모양이나 아무리 훌륭한古典文學傳統을가진 文壇이라도 그런便利한 境遇는 實際的으로 잇슬수업슬것이다 도리혀 問題는 그와反對의境遇라는데文學遺産繼承의 困難한理由가잇지 안을가? 文學遺産의 繼承에 잇서 傳統을問題할것은 그傳統이 善이냐 惡이냐하는것、그말에語弊가 잇다면 그傳統이 現代的인 것과 對照하야 長이냐 短이냐 하는點에잇지안코 그것이 善이든간에 그文學의 重大한要素나아니냐하는곳에 잇다고 본다 비록그傳統을소위現實에全般으로비치여볼때에 全般으로惡과短에 屬하는것이라도 그것이 同文學의重大한 傳統일때는 얼마든지 그것을對象으로取하야 文學遺産의 資料를삼어야할것이다。文學遺産의繼承이란 밧듯이 長을그대로 受繼하는곳에 잇는것이아니라 그것을反對로反撥하는곳에도 遺産繼承問題는잇는것이어날가 뿐만아니라 大槪는도리혀 後者의境遇가 大部分일것이다 웨그러냐하면 文學遺産의繼承이란 賢明한諸氏가 말하는바와가티 盲目的인 繼承이 아니고 正當한批判우에되는것이니까!

鍊金術

都會文學

石耕牛

農村文學에 比하야 都會文學은 量으로보나 質로보나 遜色이잇다。朝鮮人口의 八割以上이 農民이고 都市의轉運이 大部分外來資本에 依據하얏다는事實이 作家들로하야금 都會에等閑케함일까? 或은 朝鮮의 리아리티가 都會보다는 農村에잇기 때문일까? 다 理由가 될것이다。또한가지理由로 作家에 都市的感性이 發達되지못한것을 指摘하면 그것은 誣告일까?

最近에 都會描寫를 主로한作品은 朴泰遠氏의『川邊風景』이다。그러나 그것은 京城에서도 가장保守的이고 古典的인 一角의描寫엿다。材料뿐만아니라 作家의感性에잇서서도 洗鍊된 現代都會性을 보혀주지안햇다。李箱氏는 京城의都會性을 어느程度까지 把握한作家엿지만 지금은 업고 金起林氏도 期待를보히기는 하나 未知數이다。

現代의 魅力은 역시 都會에잇다。現代文明에 생겨나는 複雜한性格은 都會가아니고선 볼수업다。더욱히 現代生活의 速力性과 集團性과 銳敏性과 直截性은 現代作家의 魅力과野心을 刺戟치안코는 마지안을것이다 現代都市가 消費的이고 享樂的이고 敗頹的이여서 文學的材料가 안된다는것은 皮相的이고 僞善的인 見解이다。作家는 이런自己欺瞞的觀念에 빠지지말고 現代都會에 눈을뜰것이다。

京城의 街里나 집이나自然에 한아로 文學과因緣잇는곳이 업다는것이 무엇보다도 슯흔일이다。옛날漢詩라도 뒤적어리면 잇겟지만 그것은 우리와 關係업는일이고。淸溪川邊만한程度라도、조호니 하로밧비 京城의군대군대가 文學的聯想안에定着되기를 願한다。京城이乾燥無味하야 그안에드러잇는 사람은 天痴가티 사러가는 박게 아모魅力도 新鮮味도 늣기지못한다는事實은 京城에 文學的名所가 한아도업다는데서 생겨나는 不幸이다。

……◇……

戰爭文學 (十)

熊津戰과 詩

湖岩

熊津(公州)戰은 百濟遺衆과羅唐軍사이에버러진 一激戰이다 처음에 百濟가亡하자 宗室福信等이 일어나 日本에援兵을 請하는同時에 日本에가잇던 王子豊을 마저다가王을삼고 周留城(扶安?)에據하니 西北部가 모다響應하엿다。

어에唐將劉仁願을 熊津에 圍攻하매 羅唐의增援軍이到하야 仁願을 救出하기爲하야 熊津에처드러온다。

어때百濟福信等은 熊津口에兩柵을 세우고 羅唐軍을 막더니羅唐軍이 猛擊하므로 百濟遺衆이 柵內로奔入하려고 爭橋하다가 墜死한者ㅣ 萬餘人에達하엿다。

福信等이不得已熊津에서退軍하야 그西北인任存城(大興)에 入保햇스나 도리어氣勢를 올리고잇섯스며 그根據地인 周留城은 險阻하야 易守難攻한때문에 羅唐軍이 敢히 건대리지 못햇다。

福信이 한번 怪力을 부리면 羅唐軍도 敗走하게되니 當時福信의 威勢이야말로 猛虎의 翼이 잇섯거니와 그는 이처럼 戰勝의機를타서 그翌年에 다시熊津進을 遮하다가 이때만은 唐大軍에게 敗北되고 말엇다。

그러나 福信이 生存한限에는羅唐軍도 長策이 업더니 不幸히도 自皮生虫으로 그네執權者사이에 內訌이생겨 福信이 豊王의 손에 被殺함에 미처는 前日의 氣勢가 아주 꺽기고 말엇다。

어內訌을타서 羅唐軍은 百濟遺衆을 水陸兩方으로 來攻하야 周留城을 陷落하니 豊王은 高句麗로 出奔하고 百濟遺民의 反抗은 어로써 終幕을 다치고 말엇다。

熊津은 이처럼 百濟亡後由緖깁흔 戰場으로 新羅末에 이르러는 王族 金憲昌의 叛據햇던곳이다。羅末 儒仙 崔孤雲(致遠)의 熊津公山城詩에 갈우되

棲帶江山似畫成。可憐今日靜消兵。陰風忽捲驚濤起。猶想當時戰鼓聲。

熊津으로 扶餘에 이르는 錦江一帶의 自然美는 史蹟과 어울리어 南國佳人의 따뜻한情緖를 자어내고 잇서 모다 藝術家의 詩題가되고 畫料가 되엿든바 徐四佳(居正)의 公州十景의 錦江春遊를 읊픈 一句에 갈우되

錦江新漲金衛猗。蘭棹隨意移畫筋。

또 同十景의 熊津明月을 읊픈數句中에 갈우되

百濟往事如鳥過。我問明月應知。一自樓船舊海來。國破已遠唐府開。

× × ×

病窓隨想
어린조카와 싸운드빡스 (1)

金兌鎭

月 二十圓未滿의 薄俸店員인 찬호지내조카가 큼럼비아포타블 五十五圓자리를購入하엿다 안지라면 안고 서라면스거든 善良한少年이드니 바람이낫다 월열일가一年前부터月給봉투가 조공식축난다 그어머니(내누이)와아웅사이에는 달마다 옥신각신이생겻다 허나少年의素志는 實行에옴길 能力을점여사드림에 喜悅을 그것명이다그려드니『馬의娘』과『赤城의子守唄』가少年의耳邊에서 울

올나는 나의어른다운 知覺으로 견디릴 아무런權限도 갓지못한다 그것을 가지기가 무서웟기도하엿다 占有物(蓄音器)에 對한 少年의取扱이 至誠스러움에 잇서서도 별다른 否定을 나는 나릴수업섯다 器械의外皮는 베흔겁의케이스로 安全히包裝되엿다 特히싸운드빡스에關한 知識에서 나는어든배가만타 그價格이 器械갑 三四割에該當하니 精하게다루어야한다는것을 再三再四 少年은力說하엿다

그러케 밧들고모시든 싸운드빡스를 不幸히도 少年에게잇서서는 實노不幸히도 내손으로傷痕을내고말엇다 豐滿하든 音響간데업고 까륵까륵, 귀아픈 雜音이들날뿐이다 마친少年은外地로 出張을갓스나 그의用務는二三日內로 그로하여금 이不意의變態을 마저야할運定이엿다 十五圓乃至二十圓의 新品을 代置할수는 나로서는 거이無望한일이다 애기의주먹만한 이機械의일허진 吊音을 少年의 도라오기前에 바로잡어노아야겟스나 별도리가업섯다。나는조바심을이르키엇다

刑務所의넓다란 一野菜바테바람이인다 연다라 비人소리다 荒冷한 이 北村에 오늘따라 訪問客이 잇슬리업는데 눈맑는발자옥소리가 房아페와서 머즌다 또 나의動悸가 例에따라 시작한다 누군가?「재봉침 오린강 죽음기 고칠것업습니까」벼개에서머리를 번저든 나는모질듯이 口逡이 우렬하게 發音된 四十흥의 嶺南人이다。그보다도내가快斷力을 일케한것은 이사람의눈이다。계섬츠레한 그눈은알콜中毒을 代辯하엿기때문이다

「고칠수잇읍니다 청만갈면 아조새것이되죠 一圓만내이소」그의손에는 少年의悲嘆을사고남을 싸운드빡스가 잡혀잇다 나는 나의冒險心을 이리키어 싸운드빡스를맛겨버렷다 비人소리속으로 그것을바터가지고 벙긋웃으며 厥公은 사러젓으나 그웃음은오래도록房안에 머무러잇다。웃음은미치旋旋하旅巾가치 꼬리를치며 一間房구석구석에퍼저서 나의病席에까지 넘처흘른다 물건은 完成될가? 來日까지라면泰山도허물수잇는時間이다。世事는 가진造作을 이時間에도 나흘수잇다 드디어幻想이눈아페나타난다 도파박구어진 싸운드복스가 일흘로溶解되는幻想이다 게섬츠레한그눈에 어떤分別을 規約할수잇든가 後悔와더부러 나는조처나가고싶헛으나 그는갈데로갓을것이오 나는일어날수업는몸이다 머리를흑고 팔을흔들고 입술을깨물고 싸으씨은 나는厥公게게욕지가 ……거

린질

근치보증의 二重療法

世界的大發明되엇다

수만흔 린질약중 단시일안에 속히 근치되는약은 오즉 『겐고ー루二重療法약』이라고 권위잇는 專門醫師와 일반환자의 실험보고와갓치 칭찬과 감사로 추천환영을밧고잇는 本劑는 學說上으로나 실제상으로나 보통린질약이 감히 용납치못할 天地를섬영하고잇스며 더구나 우리조선사람의체질에 꼭맛는약인만콤지금까지에뮈다른효과를 엇지못하시고 늘再發의고통을바드시든분은 조곰도주저마시고 겐고ー루의一號와 二號로二重殺菌療法을하시사속히全快의깃뿜을어더 주시기바람니다

내복약으로는 낫지안튼 린질도 二重殺菌療法으로 곳根治되어버립니다

린질의병화근이 어느곳인것을 똑똑히깨닷지못하신분은 흔이 내복약을써서 린질을 곳치시랴고 하시나 元來 린질은 男女국부속에 린균이들어가서 그곳에(뇨도조직심부)헙집을만들고 속깁히 파무처잇서여러가지로 활동을하고잇는만큼 무엇보다도먼저 병화근을 도려빼내듯이 곳처버려야 낫는것은 정한리치가 아니겟습니가 즉 직접 환누에 治療하서야만 速히낫는것은 이미 世界醫學界에서 共通승인되고잇는바이오나 종래의 국소요제(局所銀劑)또는 직접가루약을 애교로 꼬챙이처럼 이펴서 넛는약등은 일장일단의 폐해와 유감이 적지안엇는것입니다 그에비하야 『부라온銀겐고ー루』는 더구나 強力한殺菌力과 深達消炎作用이우수하며 『겐고ー루』만이가지고잇는 二重殺菌療法인까닭에 短時日안에根治됨으로 환자를 저히볼수업는 신적육체적 물질적고통에서 속히 버서나시게만들어줍니다

第一殺菌法 第二殺菌法 이왜必要한가

급성린질인때나 만성린질인때거나 먼저 第一殺菌法으로 第一殺菌法을하서야되나니 이로서 뇨도조직의표면과 심부의 린균을 거지반죽이나 강력한린균은 抵抗力으업스나 얼마쯤남어잇스며 치료경과로말미아마 변증세도 달너저잇슴으로

겐고ー루 이약로 第二殺菌法을시행하여서 모조리全滅식혀서오줌도말거지고 몸전신의고장까지개이여집니다 그러므로 반듯이 一號와 二號를계속하여서 치료하서야되나니 간단히 그경과와리유를말삼드리면 린균의투증으로 약에대한 변화를이르켜서 죽는균과 안죽는균이잇스니이것이 조직세포의 변화와합하게됨으로 꼭두가지약이 필요하며 두가지균에듯는약인서로 합할수가업는까닭에 一號二號가必要하니이로써 환자께서는 민족히 근치되어버립니다

『겐고ー루』는 醫師專門藥이오나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이면 치료효과가나타나는약이므로 일반자택환자에게도 간단히 아무염려업시병원치료와 똑가른 효과를엇게되는약이오니 조금도주저마시고겐고ー루로치료하시사 근치의깃뿜을어더주시지요 본보독자의게는송료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本劑에는 약가는同一하나 一號 二號(남자용)三號(부인용)의구별이잇습니다

설명서와실험보고서를등 지하는대로거저드립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振替東京三五〇一九

京城 新井藥房・木村藥房 大邱 黑海堂 釜山 南藥房

부라운銀 겐고ー루

—약가—
보급약……一圓九十錢
十七日分……三圓八十錢
卅五日分……七 圓
전도약방에서판매합니다

V—39

補血强壯

造血아웃호르몬

부루도—제

ブルトーゼ(三圓五〇)
アルゼンブルトーゼ(三圓五〇)
ヨードブルトーゼ(三圓五〇)
キナブルトーゼ(三圓五〇)
グアヤブルトーゼ(三圓五〇)
コールブルトーゼ(二圓五〇)

帝國醫院 常備 太田病院 採用

B 1260

「活動の源泉」

發賣元 株式會社 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趣味娛樂

時局의認識正確과 戰時映畵의淨化策

似而非戰爭物에痛棒

現下 非常時局 當面의 世相을 確實히 캣취해서 軍事映畵의 質的優秀와 皇軍의 意思를 傳達하는 映畵報國의 徹底化를 期하려 各社가함께 製作에 愼重한態度를 取하고있다。最近 巷間에 氾濫하는 戰爭映畵라는것은 잘못하면 亂作粗作의 臨時製作品과 때로는 인디끼 戰爭映畵도 눈에 뜨이는 現狀을 憂慮해서 이러한 亂作을 徹底히 膺懲하는同時에 더욱 戰爭映畵의 質的 內容的優秀性을向해서 邁進하며 非常時體制를 참으로意義있게하기위해 傑作戰爭映畵를 製作하려는 傾向이 濃厚하게되여잇다。

그래서 皇軍將士가 決死轉戰하고 또는 銃後의 國民이 赤誠을 다하는이때 戰時映畵는 무엇보담도 良心的으로 愼重하게 製作하지아니하면안되겟다고해서 그方法으로는 最近『뉴-쓰』中에 皇軍의奮鬪하는實狀과 銃後의熱誠을 全部 收錄하되 이것을 잘『픽크업』을하는것이 조켓다고되여잇다。

萬年處女라든 水谷八重子結婚

萬年處女라고 하든 水谷八重子가 半生의破戒(?)를하고結婚을하게되엿다고한다。相對者는 守田勘彌와의사이에 이러한艶聞은 一年間을 끄을다가 맛친내 이두株의 連理枝에서는 相愛의 열매를 맷게되엿는데 이結婚에 對해서 끄신도만혀고 親戚의反對도엇지아혓스나 두사람의 灼熱한 情炎은 모든것을 다 排除하고서 지난달 熱海의 避暑로부터 도라오든 卽時로 一路結婚의『꼬-르』에 邁進하게되엿는데 結婚式은 오는十六日(內定)로서 時局이 時局인만큼 될수있는대로 簡素하게擧行한다고하니 스크린이나 스테-지에서 華麗한 八重子의 生活과는 좀 동떠러지기도하나 防空演習으로 演劇公休期를 利用해서 式을行한다는것은 또한合理的方法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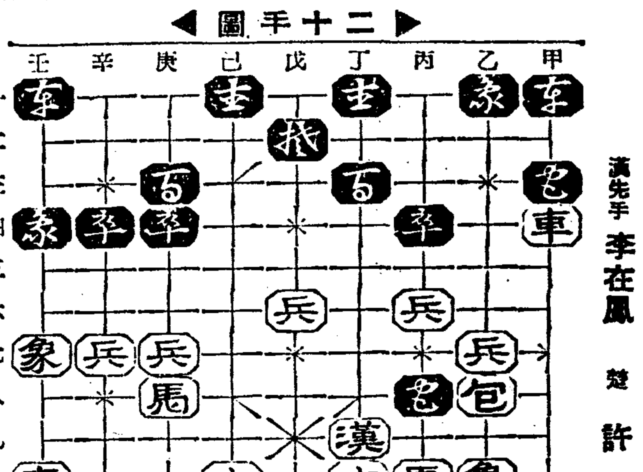
佛蘭西自轉車耐久競技

最近 巴里에서 出發點으로한自轉車耐久競走는 六日間을 晝夜해서 타고다려낫는데 그것이人氣를 매우어덧다고한다(寫眞은 自轉車輪을 通해본 選手들의力走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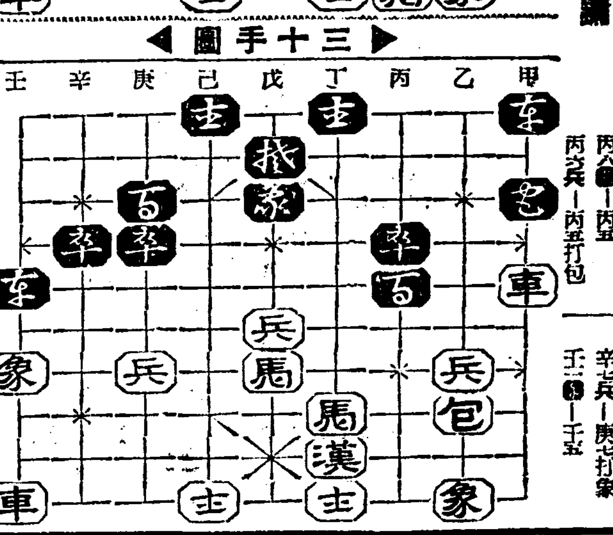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三)

漢先手 李在鳳 楚 許鏞

◀第二十手圖▶



◀第三十手圖▶



甲四車—甲五
乙二包—戊五
庚六馬—戊七
丙八包—丙五
丙六兵—丙五打包
丁三包—丙五打兵
丙七馬—丁八
壬四包—庚七打兵
辛七兵—庚七打象
壬一包—壬五

라디오

七日(火曜)

◇午後六時 學校劇 일허버린人形 白洋會 指導 洪銀杓 伴奏 洪淳哲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가을과登山 金尙鎔
◇同七時三〇分 講演 北支特殊地位(一) 崔南善
◇同八時 軍歌工夫 婦人從軍歌 奧好義作曲 鈴美合唱團 指導 李鍾泰
◇同八時一五分 歌曲 一、界面 二、數大葉 三、界面騷聳 四、編 金蕙紅 金愛蘭 金相淳 金永根 金一宇 洋琴 大笒 杖鼓
◇同八時四五分 唱劇調 一、短歌 處士歌 二、唱劇調 赤壁歌中 활쏘는데 姜南中
◇同九時一五分 短簫獨奏 鼓手 池龍九 李炳祐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俗曲
◇同六時 (東)物語
◇同六時二五分(仙)講演
◇同七時三〇分(東)講演(自天津
◇同八時 (東)琵琶
◇同八時二五分(東)常盤津
◇同八時五五分(大)歌劇

八日(水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굴비』
◇午後〇時五分 (東) 合唱 一、빗나는아침 山田耕作作曲 二、獅子舞歌 信時潔作曲 三、靑年歌 山田耕作作曲 四、航空愛國歌 山田耕作作曲 大日本聯合合唱團 피아노伴奏 高橋美子 指揮 小松平五郎
◇一時一五分 家庭時間 新凉과讀書(一) 孫貞順
◇同六時 朝鮮俚諺百首 (DK어린이係選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衛生講演『虎列剌이야기』 崔羲楹
◇同七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七時四〇分 講演(國語)—政務總監官邸로부터中繼—『今番事變에나타난朝鮮同胞의赤誠』 政務總監 大野綠一郎
◇同八時一〇分 (鮮譯) 通譯官 田中德太郎
◇同八時四〇分 軍歌工夫 婦人從軍歌 奧好義作曲 鈴美合唱團 指導 李鍾泰
◇同九時 銃後美談의三夜(第一夜)—鮮滿交換放送— 〃우리들의赤誠〃 第一景 慰問주머니(安鍾和作) 第二景 빗나는勇士들(朴基采作) 映畵監督同人會 出演 安鍾和 李圭煥 朴基采 金幽影 卜惠淑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合唱 姜石燕
◇同六時(城)DK文藝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四〇分(城)講演
◇同八時一〇分(仙)秋虫之鳴
◇同八時二五分(東)피아노
◇同八時五〇分(大)詩吟

九日(木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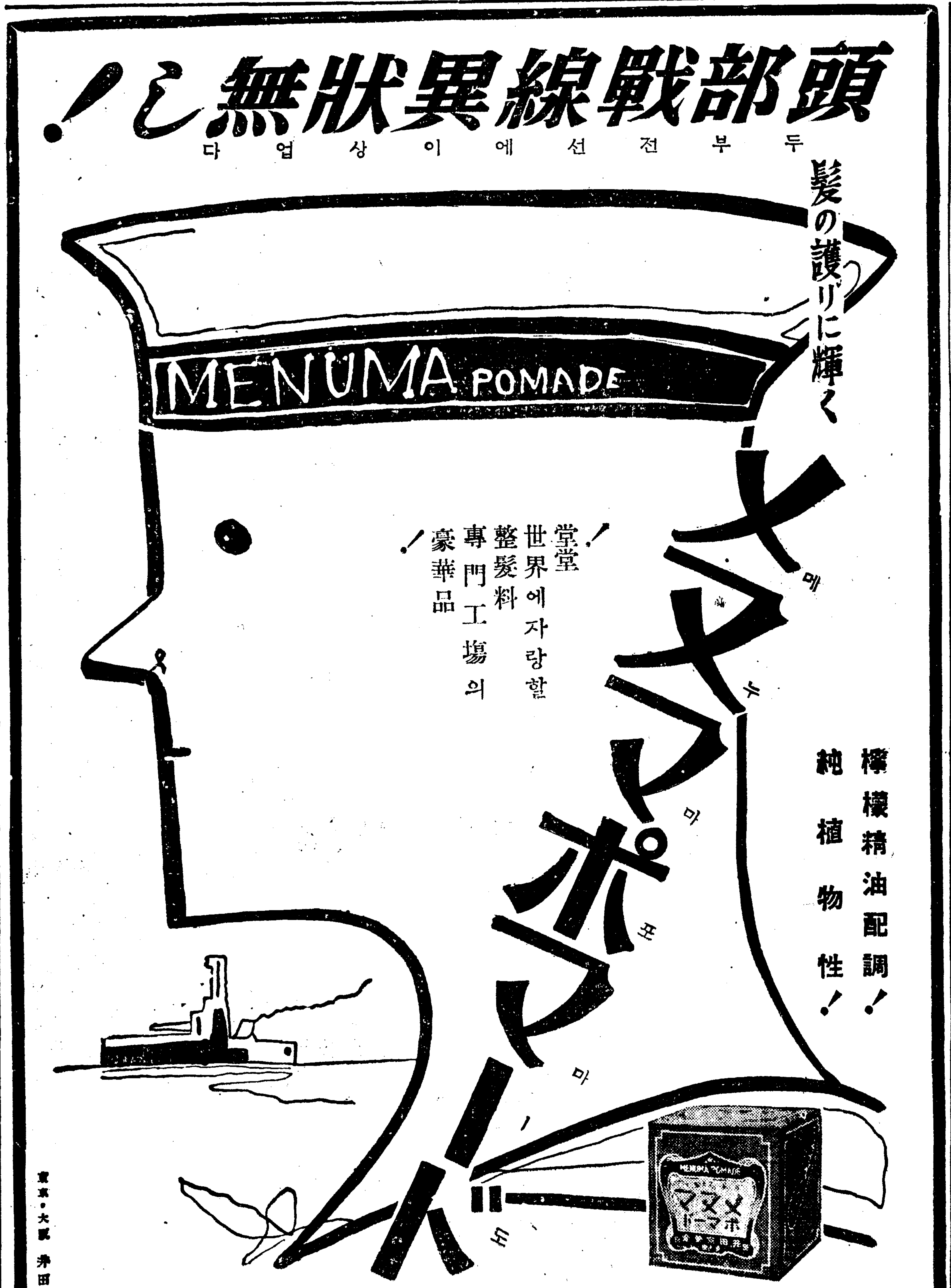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 方龍鉉 奚琴 金德鎭 杖鼓 池龍九 唱 韓成俊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新凉과讀書』(二) 黃信德
◇同六時 童話『少年勇士』 李亨稙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講演『北支特殊地位』(二) 崔南善
◇同八時 軍歌工夫 爆彈三勇士 戶山軍樂隊作曲 鈴美合唱團 指導 李鍾泰
◇同八時一五分 (東) 歌謠曲 一、도라지打鈴 二、密陽아리랑 三、사발가 四、흥타령 五、노들江邊 李眞紅 細笛 姜鶴洙 短簫 崔壽成
◇同九時 銃後美談의三夜(第二夜)『赤心』一場 配役 女(A)…金愛順 女(B)…申카나리아 女(C)…朴貞玉 下村氏…朴鳴 二의婦人…柳宮月 老李…朴演鵬 巡長…方熙林 巡捕…方鑾汀 金振山 作及演出 任曙防 效果 都無之 創作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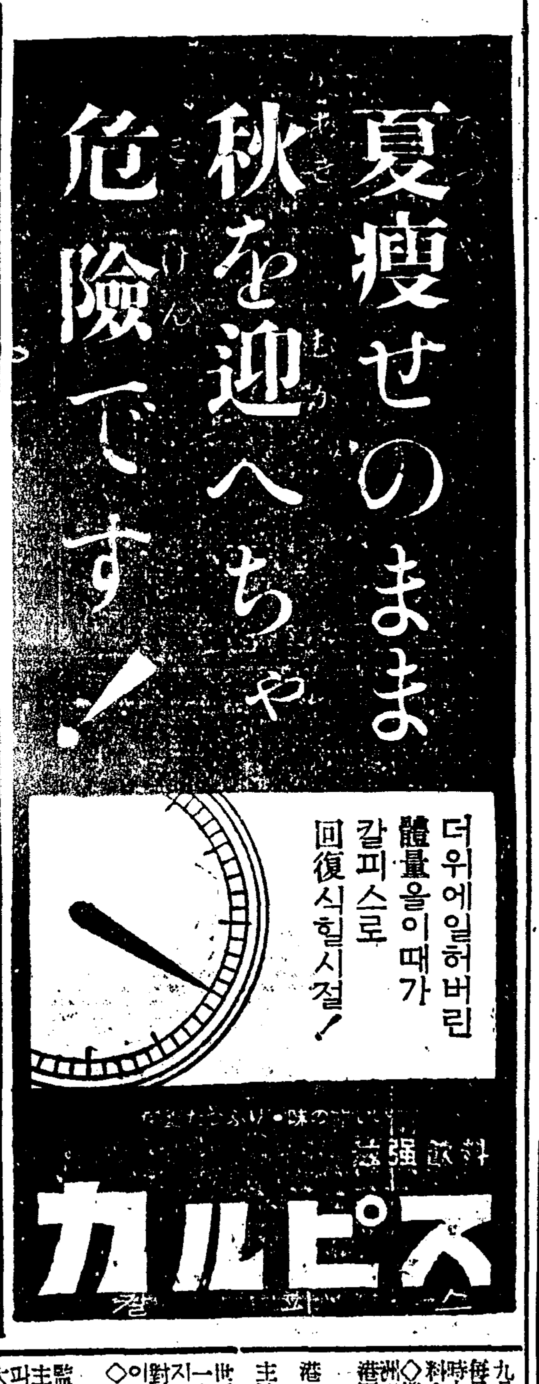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講談
◇同六時(城)お話
◇同六時二五分(廣)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仙)秋虫鑑賞日
◇八後一五分(東)歌謠曲
◇同八時三五分(東)長唄
◇同八時五五(東)浪花節

豪蕩과孤獨의 베티!데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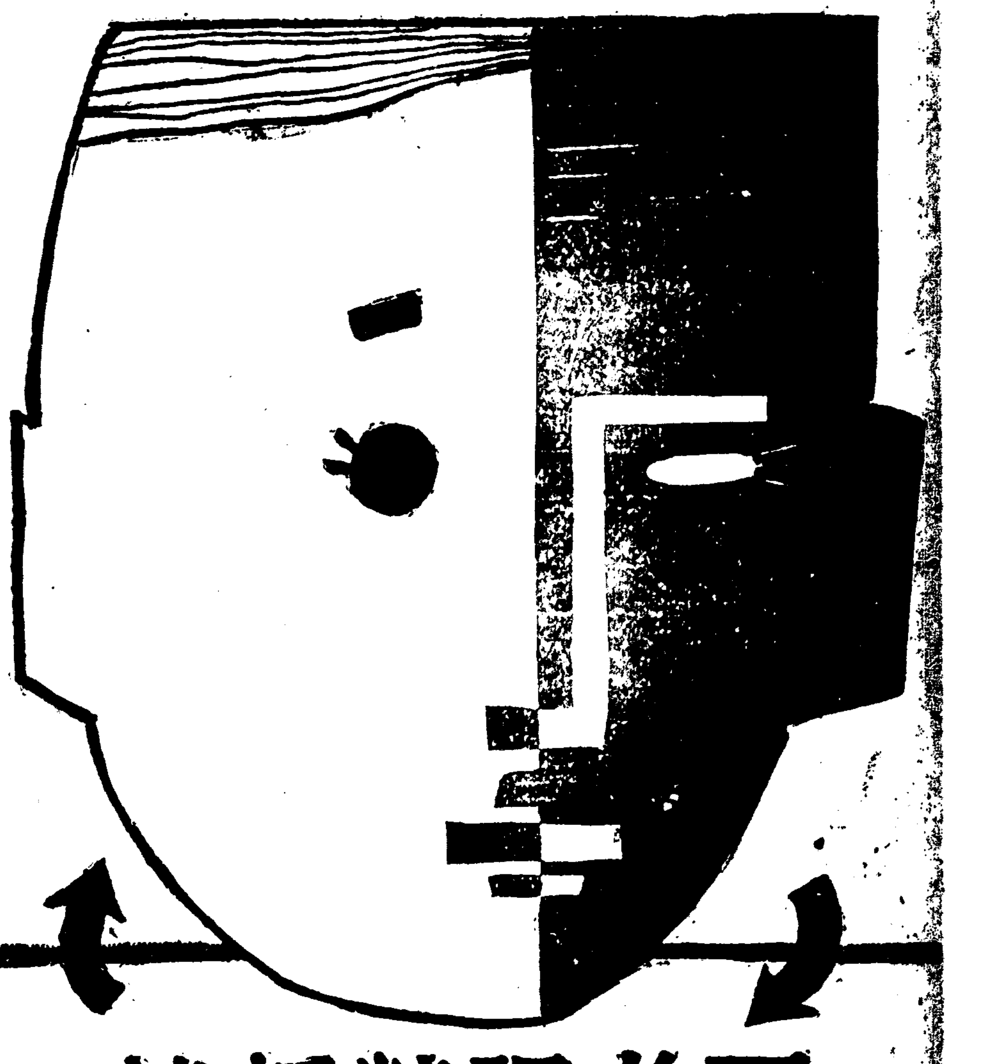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十餘年前 그때 〃蜂屋〃이라는映畵에나오든그로리야 스완손을 생가하도록 베티-데비스는 스왓손과갓다 길직한 얼골性格은 대단히좋 豪하것가트면서도 남달리눈물으만히가젓스며 외로워하는것 生活에 시달린 中年未亡人— 꼿꼿내 人生에對하야 愛着을 가저보지못하고 자라나는 아들딸을 남겨둔채 行方不明이 되엿다는三面記事의主人公은혼허이러한劑의女子가아니엿든가





女性 九月號發賣中 定價二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世界的優秀한チベ新藥



不老强精新藥
안도로스친 アンドロスチン

效力이優秀하다하야世界各國治療界에서 賞用…… 强力睾丸有効호루몬劑

안도로스친『치바』는最近男性호루몬化學上에서, 가장進步된호루몬製劑이니, 이世上에나오자마자의全世界의治療界에喧傳되여東西各國의 名醫가賞用하야 모다그靈驗偉效를稱揚하는이야말로 호루몬劑中의唯一無二한良藥이다。

本劑는强力한젊어지는藥이니 新鮮한雄性生殖腺에서抽出한含有効호루몬을含有한까닭이다 能히男子生殖腺을强壯케하고精蟲形成作用을도으며 全身機能을活潑케하며 男性性慾을顯著케한다。內服(錠劑)亦是短時間에能히精力과精神力을增强하야早老를防止하고活動力을增加한다

【主効】 性慾減退・體力減退・生殖器衰弱・陽萎・精神的疲勞 記憶力減退・眼精疲勞・性的神經衰弱・其他一般老衰現象及心身衰退所致之各種障碍・又有還少之効

片劑 小瓶三十片日金三圓八十錢・中瓶一百片日金十一圓五十錢 大瓶二百五十片日金二十五圓 —信用片劑亦能奏奇妙功効—
注射劑 每盒六管及五十管

ANDROSTIN "CIBA"

文獻由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內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日滿學術部郵寄可也
日本及滿洲國總代理店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有名藥房百貨店藥品部에有함)
13—24

桃花劇場 電(龍)一三三三番
九月七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上映낫一時부터밤七時十五分始映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佛蘭西파라-나-단作品日本版殿洲가처음으로보내는광크映畵!! 港町알세유-의爭鬪豪華版
港口의掠奪者爆笑
港口의掠奪者巨匠!…모라쓰도-루몽氏監督
主演벨・보왈알렉살도리뇨-비엘랄겔지스레누부류-
世界의건지구뎅이말세유의港町! 一步橫町으로這入한다면!그것까! 지에地獄町!猥褻한密輸入者를相對에生命을이저바리는悽慘한싸홈이다
◇P・C・L超特作全發聲版 爆笑喜劇 見世物王國
監督…松井稔氏 主演 岸井明氏 藤原釜足氏
파社特作漫畵二卷 大每特作뉴-쓰二卷

團成社
六日부터四日間 料金 大人三〇錢 小人二〇錢 十時半、一時半、六時半、三回興行
◆朝日世界뉴-스
◆東日大每 國際뉴-스
◆讀賣發聲뉴-스
◆支那事變特報 北支、靑島、上海其他現地로부터空輸에依한壯快한特別뉴-스上映
◆新興키네마時代劇 佐賀怪猫傳 監督、木藤茂 主演、大友柳太郎 鈴木澄子
◆메트로超特作 안나・카레니나 監督、구라렌스・부라운 主演、구레타・가르보 호레데릭・마-치

東洋劇場
九月六日낫부터四日間 開演時間・午後一時半 七時半 劇團豪華船 公演第四週
△上演劇本▽ 李雲芳作『男便의貞操』三幕四場
男便에게貞操를직혀달나고부르짓는現代女性의煩悶과苦惱를如實히그려내인이하篇은모름직이우리들남의남편으로써또는남의안악으로써의偉大한警訓이되는同時눈물이압흘가리워 참아보기어려운 이名劇!單四日間뿐인이機會에後悔업도록부듸보아두시라
南宮春 作『그보다더큰일』一幕
觀覽 階上大人六〇 小人五〇 料金 階下大人四〇 小人三〇

第一劇場 龍光一七五五番
九月六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艶麗豪華의三大傑作超豪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一回十二時、二回二時二十分三回七時三十分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原作 日野鶴雄氏 監督 佐佐木康氏 現代名篇 母を尋ねて 共演 上山草人、市村美津子、三宅邦子、立花泰子、南部耕作、水戶光子
콜럼비아社特作品全發聲 原作 피-타B카인氏 監督 포-드비-브氏 西部活劇 赤熱의荒野 主演 찰-스스타-렛드氏
松竹京都超特作올-토-키版 原作、脚色、監督、冬島泰三氏 時代名畵 坂本龍馬 共演 市川左太衛門氏 坂東橘之助 歌川絹代 淨香新八郎
五日ヨリ八日マデ四日間公開 階下席 十錢均一

優美館 貫鐵町 龍光三九五
九月五日부터 麒모스코기노超特作發聲日本版 게바레그산도로푸氏監督作品! 陽氣な連中 레오니!도조소푸氏 主演 엘빼올로와酸助演
京城撮影所超特作朝鮮語全發聲 金蘇峰監督作品! 죽엄의자장가 一名〃迷夢〃 文藝峰 羅雄 李錦龍 共演
極東映畵社特作時代劇 後藤岱山氏監督作品! 逍澤元輝踊研究所員特別出演 まぼろし城 後篇 澤井龍之介 妙蓮子 小濱美代子 主演 藤村正郎 近江路夫 助演

黃金座
4日より7日まで
眞實一路大會
前篇 父の巻 11・20 3・00 6・40
上海北支戰況 1・05 4・45 8・25
後篇 母の巻 1・15 4・55 8・35
全館開放 30錢均一

中央館 永樂町 本三二〇四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第二回 六、第三回 七、
メトロポリタン超大作日本版
ウイリアム・フアーナム主演
暗黒の復讐
琴糸路 水島道太郎 主演
毒草
市川壽三郎 櫻井京子 主演
光秀の源太

中部版

通川普校生徒獻金

【通川】 북지사변이 발발하자 총후에도 국방헌금이 답지하는데 지난○일 애국기헌납에 통천공립보통학교 어린여생도들은 애국기마ー크를 파라 어든돈 이십일원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엿고 또 통천공립보통학교생도들은 학교운동회에서 모아 황군위문대 어십대를 만드러 지난○일에 보내엿다는데 한대에 삼원여전씩 되다고한다 또하나는 통천리발조합(通川理髮組合)에서는 그동회 가난한 주머니를 터러 오원을 지난○일에 애국기헌납으로 기금으로헌금하엿다고한다

五個年에五千町步 農家附屬林設定

京畿道十個年計畫의半期完了

農村燃料에便宜多大

경기도내의 농가약이십사만호중 상당수이는 산림(山林)을가지고 잇지안흔관계로 종래생활상에나 또는영농상 필요한연료 비료 가축의 사료(飼料)등을함부로 다른사람소유림야에가서채취하야 산림주체와 및 지도에 만흔불편이 잇슴으로 경기도에서는 이페풍을 타파하고 도원료자원의 유래을 기하고저 소화팔년이래 십개년계획으로 농가부속림(附屬林)설정에 착수하야 림야의 차업(借入)알선구입자금융통등에 극력노력한결과 금년까지 지에 사만이천여호에 림야사만 팔천여정보의 설정을완료식혓는데 일정보라는 작은 면적이나 일반농가에서는 연료림, 록비림(綠肥林) 채취림(採草地)등으로 리용하야 생상만흔 편의를밧게되엿다한다

伊川國防婦人會發會式擧行

【伊川】 강원도 이천군에서는 북지사변발생이후 황군의 인문과지나군의횡포한행동의우중에잇는 총후의운동을하고저이천국방부인회를창설코자과반모든준비를진행하던중 지난 일일오후두시부터 이천경찰서연무장에서 회원배여명이 참석리에 향거요배 국가합창을하고 의원의축을한다음 갑배서장과 북영정무주임의 창립주지설명 시국에대한 숭도보고장의강연 황군의원문에 대하야 부인회의 활동으로 위문대(慰問袋)천개를 모집할것과 례빈웅 강교주의 축사로 성황리에 선언문랑독 성수만세의 삼창을하고 폐회하바 임축된 역원은 다음과갓다

會長鄭貴淑 副會長平家主人 崔李煥夫人 理事手塚貴助外四名 評議員 薛永東夫人 金廣鬼夫人外十五名 顧問 康郡守夫人外五名

錢金德萬 十五圓 趙祥五 五十錢 金命煥 二圓 飯龍澤 五十錢 李根實 五十錢 權學大 五十錢

[illegible] 十錢 林元植 一圓 金元[illegible] 五十錢 [illegible] 五圓 金[illegible] (氏名不明) 受贈 一圓五十九錢

忠北秋繭共販 七萬餘貫豫想

【淸州】 충북의 금년추견공판은 구월팔일로부터 구월이십일까지 일제 거행할터인데 출회예상은 칠만삼천이백관이라하며 청주공판장의 우등견은 일관삼원팔십전으로 전년에비하면 매관당 륙십오전의 고가라한다

鐵原에서寫眞展覽

【鐵原】 철원읍(鐵原邑)에서 영화사진관(英和寫眞館)을 경영하야오든 조배현(趙培賢)군은 이번에 동경『오렌ー탈』사진학교를맛치고 도라와 금반철원영화사진관에서 본보지국후원으로사진전람회를 개최하고 오일부터 오일간 일반에게 공개중인바일반의다수관람을 바란다고한다

[illegible]날부터 가동리에 순회강화를 시작하얏다는데 그강화의취지는 [illegible]에대하야 [illegible]을 도모코자 [illegible]시키는것이라한다

十數年以來로 初有의豐作

平康郡一圓의農形

【平康】 평강일원의 금년도농작은 식부이래 우순풍조로 발육상황이 량호하야 과거십수년이래초유의 수확을보게되리라한다 나벼이 성숙하여가는 전답곡은별서일면으로추수하고잇는형편에잇서 논곡식에잇서서는 평년에비하야 삼할사할의 증수를예상하고 전곡에잇서서는 최고십수할의 증산을예상하고잇서 근년회유의 대풍작을 예상하고잇다 작년도에 다소풍작으로 곤난을당하고잇던 농가에서는 크게환약하는상태로 앞으로 추수할리일개월동안만 풍우기 순조로진행한다면 실로미증유의 대풍작이 되리라고한다

金鑛으로남의무덤을파내고 그代金으로賣喫

그代金으로錢利한愚漢

【淸州】 금광으로 팔기위하야남의 무덤을 파서 달도에 옴기고 그돈으로 전리를한자가청주(淸州) 군하에 잇다 청주군문의면 도원리(桃源里)에 거주하는 김모(金某)는 동족김동만(金東萬)의 선면에잇는 무덤을굴총하야 다른산에 이장하고 그산을 청주군남일면 방서리(淸州郡南一面方西里)중모(鄭某)에게 일천사백사십원에 매도하얏스나 일부를 가정에게 오십원씩 분배하기에는십원이 부족됨으로 더식리를해서 분배하기로하고 전리를 하기로하엿다한다 그사실을알은 피해자김동만(金東萬)은 청주서에 사실을고발하엿는데 그일당은 속속소환취조중이라한다

本社社長方應謨氏 六日、議政府에서講演

時局再認識强調

【楊州】 이번제이차 시국순회강연은 지난륙일 아침아홉시부터 의정부 양주공립보통학교(楊州公普校) 강당에서 개최되엿는데 양주군수 원산(遠山)씨의 강사소개가잇슨다음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가 등단하야 지나사변의원인과 지나에대한 세계렬국의대세와 금후국민의 각오에대하야 한시간의열변이 잇엇고 이여서 목사박연서(朴淵瑞)씨가등단하야 현하시국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하고 끗을맛치엿는데 청중약오백여명의 집합으로 대성황을이루엇섯다 오후에는 련천(漣川)에서 강연이엇기로되여 한시발열차로출발하얏다

支那事變發生以後 仁川荷物五割減

一月부터八月까지比例

【仁川】 지나사변으로인하야 기차시간개정과화차부족으로 인천항체하가 적지안타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이에대책을강구코자 칠일인천상공회의소에서 철도운송선발등의당업자회의를 개최한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이제일월부터 팔월말까지에 인천항발착화물수량을 조사컨대 십일년도 수량에비하야 약오할가량감축되엿다는데 그자세한것은 다음과갓다한다

十一年度一月부터八月까지發着數量 發 五八五、〇七七個

十二年度一月부터八月까지 着 一〇四、七二四個 發 二五二、一[illegible] 着 一一五、[illegible]

安養에 時局講演

【安養】 총독부에서는 조선내각지에 민간유력자로써 조직된 시국인식강연대를 파견하기로되여 시흥군(始興郡)에서도 륙일오후 한시부터 안양 공립보통학교(安養普校)에서 전황해도지사 현중추원참의 한규복(韓圭復)씨를 마저서 대강연회를 개최하엿는데 청중은 군내각면에잇는 면직원을 비롯하야 면협의회원구장농조지도회 간부청년단간부기타지방유력자등 삼백여명으로 먼저국가합창과 관구내무주임(關口內務主任)의개회사가 잇슨다음 한규복(韓圭復)씨가 등단하야 두시간동안 지나사변의 진상과 우리 민중의 각오할바에 대하야 열렬한 웅변을 토하고 이어서 도회의원 김민식(金敏植)씨로부터 군민으로서의 총후의적성을 충분피력하여 황국에 보은할각오를 한결의를 갓자는 열정적 언변으로 만장의의기를진작식히고 오후네시에 폐회하엿다

六月分부터徵收할 仁川汚物掃除料

道의認可나면곳實施

【仁川】 소화십이년도 인천부예산회의에통과된 인천부오물소제료징수에대하야는 당시에보도한바와갓거니와 인천부에서는 그간인가를밧게되야 신청중이든바 금년유월분부터 오물소제료를 징수키로하얏다는데 소제료에대한 매월규정은 다음과갓다한다

月汚物掃除料規定

一、土地=百坪又는 其端數마다 月額五錢式

一、家屋의等級

一等=每戶月額一圓式(旅館、料理屋、貸座敷)

二等=每戶月額七十錢式(飮食店又는 建坪五十坪以上의住宅)

三等=每戶月額四十錢(建坪三十坪以上의住宅)

四等=每戶月額三十錢(建坪十坪以上의住宅)

五等=每戶月額二十錢(建坪十坪未滿의住宅)

一、集會場所=月額五圓 劇場及活動寫眞館等

一、官公署=就業人員一人에對하야 月額十錢式 但驛에는乘降客一萬八千人으로써 就業人員一人으로計算함 (會社、組合、工場)

더욱이 每日 廢棄의處理를要할區域은 每戶에月額二十錢式

京畿道內初、中等學校에서 高射機關銃獻納運動猛烈

廿萬名의職員學童 二千六百餘圓醵金

경기도내 공사립초、중등학교 직원 생도 아동이 각각십전、이전 일전식을 거출하야 작일 애국일에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고사기관총한대를 헌납하엿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이 계획이 한번 발표되자 관내각학교에서는 한사람도 빠진교사업시 거금하야 교직원삼천팔백십일인 생도삼십만삼백삼십인 아동십오만칠천오백팔십일인 모두 실수만이천팔백사십일인에 금액은 이천륙백사원팔십삼전이 모혓다한다

平康郡煙草小賣人 八月中利益金獻金

【平康】 평강군관할에잇는 각연초소매인들은 지나사변으로 분투노력하고잇는 황군을 위하야 헌금하기로 협의하야 연초소매된 팔월중에서 십일간의 연초소매의 순리익금의 반분을헌금하기로되야 그간모집된금액일백십원오십오전을 지난십일에 평강경찰서에 기탁하엿다

鐵原에腸窒扶斯

【鐵原】 철원읍에는 근일장질부사가발생하야 경찰서와 읍사무소에서는 관전리(官田里)김유하(金有河)집전부를 소독하고 김유하의 녀식옥조(玉釧)(一七)는 도립의원에 입원 중이라한다

金浦署管內巡回講話

【金浦】 지나사변은 날로험악하야 [illegible]

平北水害同胞에게 救濟金品을寄託

仁川松峴基督敎會에서

【仁川】 상천리근역(桑川里近域)에 풍년이들엇다고 격양가를 하늘놉히부르게되이때 국부적으로 십일간에 삼백『미리』이상의 호우가나리운 평북(平北)일대에는 하천이 범람하야 주택까지류실하고 풍찬로숙하는 동포가 적지안타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소란한이시기에도 절근하는 엄동과한가지 조란동포를 구하자는 갸륵한성의로 인천송현기독교회(仁川松峴基督敎會)에서는 교도간에 의연금과의류등을 거출하야 현금구원삼십칠전과의류사십이점을 동대표 신신근(申新根)씨로부터 본보인천지국에 의탁하야 국원일동도 적지안흔감동을갓게하엿다한다 기탁하엿다는데 기부자의 씨명은다음과갓다

二十圓金彼得 一圓吳亞天 五圓朴元鳳 一圓林더리사 五十

平康카토릭敎會獻金

【平康】 평강카토릭교회에서는 황군의 분투노력에 감격하야 평강카토릭교회주임 신부 김피득(金彼得)씨와 신자측으로 권상오(權祥五)씨등 유지제씨의 활동으로 국방헌금을 모집하여된바 간신자의적성으로 모집된금액 오십삼원십전과 어교회에서 특별히 애국함(愛國函)을 설치하야 한푼두푼모힌금액 일원오십구전을 합하야 일금오십사원 륙십구전을 작일 평강경찰서에 헌납하엿다한다

仁川短信

【仁川】 점으러가는 여름철에 화정(花町) 리모(李某)(二)라는 청년은 경성부 종로(京城府鍾路) 모빠ー의 녀급 김려자(金麗子)(假名)을 다리고 지난 팔월이십일밤 마차로 만추피서(晩秋避暑)를 청하며 금강산으로 가라하지움 상인천역두에는 련양세가량된 로인이 차표 사라는 전기청년의 멀미를 잡고 『집판돈을 가지고 가라거든 나를 죽이고 가거라 이놈아』하고 야료를 하는바람에 금강산행 피서는 비거석양이되고 리모는 낫이붉거진채로 로인에게끌리여 가고 집까지가지고 나오던금은 이소동에 어머로인지종적을감추우고마럿다 득건대 리모는처가집이사하는통에 집잡을가지고피서하라다가 창모에게발각되야끌니여갓다고 미녀(美女)동반에피서도조커니와 치가(治家)연후에 유흥을구할것이 천만지당한일이 아닌가

×

점으러가는 인천항구의거리 인천리발관업자에 지난여신칠일 밤에 련합실삼세된 소녀통이삼각연애의 사랑의갈등싸흠이 연출되엿다 탐문한바에의하면 하나는 룡운정(龍雲町)모음식점의 딸 로진옥(盧眞玉)(二一)이라는 소녀로 부내 모보통학교오학년생 김모(金某)(一六)를사모하야 연문(戀文)을 보내고자하엿스나 원수의 문맹(文盲)이라 글을쓰지못하고 가튼 학교녀자부 생도 모인 전기 소녀의 동모에게대필(代筆)을하야 우편으로 부탁하엿다 그러나 동연문의 내용에는 부내모처에서 맛나자고부탁한것이대 전기 남생도가 부탁한 그날에오지아니함으로 그는맛참내 전기녀생도에게 의심을품고 헤여나 애랑(愛郞)을빼앗기지나아니할까하고 길거리에서 머리를쥐여뜻고 얼대연애격투를하엿다 그야상당한변력에연애를한다면 그누가 시비를할하라마는 십오세미만홍안(紅顔)소녀이 가 애연애(愛戀愛)하니 석불(石佛)인들 엇지기막히지안흘노릇이랴? 시대는『스피드』만능이라 조숙(早熟)에도『스피드』언가 세상은말세(末世)로군 어느로인의 한탄하는말쏨。

×

상시관제(常時管制)를 실시한 이후 어느날저녁에 룡강정(龍岡町) 근방을 통행하든 의용소방대두분이 길모퉁이에서 손애자(愛子)공의 발을밟엇다하고잇는『빼』『신라(新羅)』녀장부에분개한 녀장부는 정복소방수의 행동을 질책하자 피씨두분은 교통방해를 주장하야 마침내차호이 어우러젓다 통행하고잇든 경관이 이를제지하자 소방수씨 호기만장하야 반항을하엿다 어에 정찰관은 파출소까지 다리고가서 본서에보고하라하니 그제서야 자기의직업에위협을 느끼고 애걸복걸하는모양을 수십군중이 모힌속에 보엇다니 그얼마나 가증한노릇이랴 소방수란 정복을입고 의용이란 명칭을 가젓거든 좀더신중한태도로 지냄이 맛당하거든 이를 남용하는소방수『하야까시』푼은 좀더중계하얏스면 하는것은 부면의희망

×

지나사변이 확대하야 제반이 전시(戰時)체제로 화하고잇는차제에 국방(國防)은 물론거국일치의정신으로 하여야할것이다 이제광대한 목적과 국민의안정을목적하고『내지방은내가방어하자』는 표어밋헤 인천방호단이결성되엿다 더욱어근일에는 학교선생까지 방호단복을 착용하야 관청에도 학교에도 그야말로 비상색(非常色) 아닌곳이업다 더구나인천의거리 어느곳을 물론하고 방호단원에 볏이지안는곳이 업서 방공사상이 잘보급되고 잇슴에는 누구나감탄 아니할수업는바어다 그러나 어중에 대경질색할 기괴한 현상이잇스니 이는부내 음식점에나『카페』에서 간간히 방호단의 정복정모를쓴 취객의 방가난무(放歌亂舞)하는꼴을 볼수잇서 유지의탄식을 면치못한다한다 [illegible] 기계적행동을하지안코 좀더자각잇는 행동을할수업는지 복장이 비상색이여든 몸도비상색이여야하겟거늘 [illegible] 천만번필요하다는것은 모든유지의 말삼이라한다

(朝鮮總督府檢閱濟)

長篇小說 花冠 【40】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세화살 (卄四)

자동차가 머므러주는대로 그려관 이층으로 올라갓다。배일헌은 방 두옹을 잡더니 의심스러워 출렁거리기만 하는 동옥에게

『정히 잇는대로 가보시지오』

한다。동옥은 다시 일헌을 따라아래로 나려왓다。

『정히더러 저ㅣ절 미테 잇는 여관으로 거잇스라고 햇습니다 여기서 한참 올라가야합니다』

『그럼 왜 아주 그리로 가지안허요?』

『거긴 제가 조용할것 가허그랫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만치 깨끗할것 갓지 안흔요시장하실런데 될 좀 잘수고올라가시지오?』

『실허요 가 정히섯건 가티 먹어요』

단속문(斷谷門)을 지나 물소리와 달이 흐르는 솔바가을 올라갓다。

『참 어런 달밤엔 산이 바다보다 더 조흔것 갓군요』

『네……』

『아! 참 달두……』

『……』

군데군데 려관이를을과 함께 전등이 켜잇다。산보하는 사람들도 끈허지지 안는다。그러나 산은 올라갈수록 기펴진다。

『이렇케 올라가 무슨 려관이 잇서요?』

『절 미테 꼭 하나잇습니다。저기 저 전등 미테 절 경내에 잇는 려관이라고 써잇지 안습니까?』

그러나 일헌은 큰길을 버리고 어느 압재로 올라가는 샛길로 드러선다。

『어제 얼마 안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등도 산보하는 사람들도 보히지안는다。밤버레들이 날고 울고달이 비칠뿐 물소리도 멀어진다。

『여기가 어딘데……?길 잘못드러선 안흐섯세요?』

『안요 좀더……』

일헌은 좀더 좀더하며 큰길에서 패거리 들어갓다。거러안기조흔 반석에 나오는데서야거름을 멈추며 돌아섯다。장간 번짓거리더니 갑작이 탁해지는 목소리로

『동옥씨?』

『예?』

『……』

『동옥씬 배가 아모리 약점을 차즈려 햇고 며워하려 햇지만 털끗만한 약점이나 말씨 한가지 며워할걸 발견하지못하고 말앗습니다 당신 아편 황정히……당신을 발견한 어제부터 정히와 나사어엔 행복이 올순 업습니다 내 행복은 동옥씨게로 옴겨젓습니다 이건 내임의자 아닙니다 나는 내힘것 동옥씰 미워하다 미워하다 며워하저 못하고만겹니다 동옥씨?』

『……』

『여기 안즈십시오 피곤하실겝니다』

『……』

동옥은 안지도、대답도 안는다。

『절 정히에게 신의가 업는사나이라고 욕 하시겟지오 그러나 나는 정히의 행복을아니요 내행복을 찻는 때문입니다。꿰레ㅣ가튼어도 말하지 안헛습니까? 어남자에게서저남자에게로 옴기는 녀자를나무래지 말라고。그건 진실한 자기사나이를 찻는 때문이라고……。우리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겟습니까?』

『그럼 왜 약혼을 하섯서요? 그건 차즐 사람을 차젓스니까 하신것 아니야요?』

하고 동옥도 엄을떼인다。

달은 동옥의 편을 드는듯이 거름을 멈치니 더욱 밝아진다。

『제가 동옥씨한테 무슨 폭력으로 내몸을 어루려구 어린멜 온건 아닙니다 그건 안심하십시요』

한다。정히가 여디 잇다는것은 벌서 거짓말이엿다。동옥도 속아 온것은 어머 문제가 아니라 깨달엇다。

『전 배일헌씨 언제을 밋습니다 무슨일이지 말하면 동옥씨사랑합니다 견될수 업서 이러케 행동을 가집니다』

『……』

『전 황정히와 약혼하고는 황정히보다 나은 여자를 만날때는 그녀자를 미워햇습니다 미워해보면 고우어이나 미워할 점이 발견됫습니다 그래 아조 미워하고 황정히만올내 녀왕으로 만족할수 잇섯습니다……』

『……』

모루히네慢性中毒에

福 모나ー루 (文献贈呈)

モルヒネ、ヘロイン、阿片、パントポン、コカイン等其他同類劇麻醉藥の中毒症

定價 5 10 20 50

製造元 大阪市東區道修町 順天堂藥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衞商店

戰時經濟體制整備 (5)
國民經濟確保 非常時貿易統制基調
貿易管理의基準

直接 物에依한輸入統制는── 輸入統制에서 政府의貿易政策은全面的이라할만큼 金輸出禁止하고있다 政府의貿易管理에 依한 輸入의制限、防止가 이때까지 幾多의 紛糾를惹起하여왔음은 周知의 事實인데 法律에依한 輸入統制는機械的으로될터 따라서 輸入物資와 直接關係가 深甚한國內產業部門에있어서의生產、配給의 統制가 全面的制限되어있섯기때문이엇다 政府가臨時議會에 提出한輸出入品에關한 臨時措置에 關한法律案은 貿易部門뿐만이아니라 그와 關聯한物資의 配給及消費의 部門까지도 統制할것을 眼目으로 한것이며 同時에 貿易管理의 法制的基礎인 同時에 國內產業의 計劃經濟化에 對하야도 重要한 役割을 가지는 法制이다

問題는運用如何

特히 權限을 政府에依하는것이므로 問題는 그運用如何에있다 輸入統制에關한 大體의 方針으로서는 輸入品의 全體를 一、輸入數量의 巨額에 達하는것 二、國防上及國民經濟運營上 特히 必要한것 三、必要品 四、不要不急品의 四種類에 分類하고 그中必要品以外의 各各에 對하야는 制限또는 禁止를 行한다 이境遇에 政府가 貿易管理를 運營하는데있서 가장問題인것은 輸入數量의 巨額에 達하는物品即 棉花、羊毛等을 어떠케處理하는가 하는것이다 不要不急品은 現在이미 貿易管理에 依하야 事實上輸入禁止狀態에있스며 鐵、石油等은 防上의 軍需關係로 無制限으로 輸入하지안흐면 안되므로 이 當分問題는업다 또不要不急品과 必要品의 中間에있는 物品도 大體統制的으로 取扱하야도 無關하다 따라서棉花羊毛等과가튼것은 輸入額의 大宗이오 그리고 輸出產業의 原料임으로 이것의 輸入統制를 어찌하느냐가 問題인데 이제棉花를 例들어서보면 다음과갓다

棉花統制의境遇

即輸入되는 棉花의約半分은 綿絲布 綿製品의形態로 輸出되며 남어지半分이 國內에있서서 各種의綿製品으로서 消費된다 그中輸出用의 棉花에 對하야는 輸入을充分히 認하고 一方 國內消費用의 棉花에는 그에相當한制限을 加한다 棉花의輸入이 減少되면 그만콤 紡績會社의 生產設備도 過剩으로 이에는操短을 시킨다 棉花의 消費分野가 輸出向과 國內向에 決定되면 이 輸出向의 量에 依하야 얼마라고 規定한다 그뿐아니라 所持가 만은會社로부터 적은會社에 讓渡케하야 所持의 均衡을 圖하기도한다 그런데 右와가티 國內用棉花의 輸入을 制限하면 綿絲布市勢는 當然 暴騰하게되는데 이를防止하기 爲하야는 綿絲布 綿製品의 使用 또는 消費에制限을 加하는方法을 考慮한다 特定의物品에 對하야는 綿絲布를 使用치못하게하는것과가튼것이다

民間專門家參加

다시 또 操短을 하기때문에 그만큼 市勢가 吊上되는것을 防止하기爲하야도 어떠한 考究를 하지안흐면안된다 原棉市勢가 暴騰이 업는데 綿絲市勢가 暴騰한다면 그 綿絲市勢는 조치못하다는것이다 吉野商相이 머리에 그리고있는 統制方法의 輪廓은 大體 이와가튼데 이를 實行하는데에는 여러가지 方面에 相當한 難點을 生할것이며 技術的으로도 자못困難하다 이技術的困難을 克服하기爲하야는 現在의 官吏의 知識과 經驗만으로는 不充分하다고하야 民間專門家를 參加식혀 事務에參加식히는案도서잇다

大體는自主統制

그러나 이러한일도 民間의 當業者가 自主的으로 하여가면 그以上더 조흔일이 업슬것으로 商工業者로서도 大體는 自主的統制를 기다리기로 하고있다 綿花에 對하야 自主的 統制의 標本이되면 그後의物品은 大體이에 倣하야 統制될것임으로 現在는 綿花紡績業者가 어느 程度까지 政府의 政策을 自主的統制中에 取入하느냐가 注目된다

非常立法의動向

輸出入品에 關한臨時措置法은 戰時立法이다 그러나 그中에包含된 政策의 動向은 重要하다 [illegible]

鮮滿一如의 巨大한 實踐인 鴨綠江水電의 朝鮮側會社인 朝鮮鴨綠江水力發電株式會社（資本五

世界的大規模인 鴨綠江水電實現
朝鮮側會社創總七日에完了
資本金은五千萬圓

千萬圓四分一拂込 千二百五十萬圓）九月七日午前十時半부터 朝鮮호텔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一、會社創立에關한事項報告件
一、定款承認件
一、取締役社長、取締役、監査役選任件
一、商法百二十四條所定事項調査報告件
一、代表取締役選定件

을 附議한바 野口創立發起人代表의 經過報告가잇고 定款承認後 重役을決定하고 檢査役의報告가잇슨後 重役報酬는 年二萬圓以內로決定하고 同十時五十分 閉會한바이로서 世界屈指、東洋一、日本最大의 大水電建設에關한 準備工作의 一切를 終了하엿는데 重役은如左하다

▲取締役社長 野口遵 ▲常務取締役 久保田豐 陳僖 ▲取締役 佐方文次郎 高橋康順 德楞額 ▲監査役 村尾重信 永井四郎 大島英吉 恩麟

（寫眞은 創立總會場）

六十四萬키로發電 十六年末完成
◇直時大工事着手

鴨綠江水電은 滿洲側은新令에依한特殊會社로 資本金五千萬圓 朝鮮側은 普通法人으로서 資本金五千萬圓의會社로서 亦是資本金合一億圓인바 兩社重役은 朝鮮側滿洲側各五名으로兩社共通重役이다 工事는即時 水豐에서 着手하야 十五年末에 一部發電하고 十六年末에는 全部發電할터인데 出力六十四萬키로이다

世界的大工事로서 發電規模는七十二萬一千二萬키로發電임으로 現在世界最大規模인 一億八萬키로에比하야 더큰것이다

二十二方里貯水池에 百億立方의물의貯水量하며 堰堤의높이는百米突이다

이發電은協定에依하야 鮮滿折半使用할터이다

◇…野口社長 談

鴨綠江水電의 開發問題도 鮮滿兩地의會社가創立되여 建設着手期를 마지하얏다 同水電의 鮮滿兩地에 貢獻할 重要性은말할것도업고 이事業遂行에對하야 나는 主로朝鮮側이 當키로되여 나의系統이 技術을擔當할터인데 이重責에 鑑하야 最大能率을發揮코저한다

朝鮮化學敷地買收

朝鮮化學工業（東拓、森系合作）의工場敷地買收는 東拓이咸南洪原郡洪原邑에서 咸南道廳의援助를 得하야 總敷地百萬坪의買收를 完全히 終了하얏스나 建設着手는 資金關係로 相當히遲延되리라한다

海運保險料 大幅暴騰

海運保險料는 時局關係로引上되어 事變前에比하면

◇大連向=事變前百圓에 對하야 十錢을五錢引上（五割高）

◇天津向=事變前百圓에對하야十三錢을 二十五錢引上（約二十割高）

◇船舶保險=五十錢引上이 되엇는데 이미 制海權을 把持하얏슴으로 以上合[illegible]

臨時資金調整法
朝鮮도運用委員會設置

臨時議會의 協贊을 經한 臨時資金調整法은 勅令에依하야 朝鮮에도施行케될터인데 十一條의委員會는 設置치안으나 十二條의委員會는 朝鮮에도 設置할모양이다 十一條委員會는 調整을加할資金의種類를決定할 委員會로서 朝鮮에서도 參加할터인데 十二條委員會는 十一條 委員會에 基하야 個個의 場合을 決定할委員會로 朝鮮에는 朝鮮으로서의 特殊事情이잇는等 關係가 잇서 民間有力側도 網羅한 委員會設置를 보게되리라한다

米穀資金金利 大幅引上?
從前最高가最低일듯

米穀資金問題는 低資受入念慮가잇서 그形勢가注目되는바 今年度의 米資金利는低資問題를따로이하고 自己資金에 依하는것은 特異的金融情勢로 例年에比하야 大幅騰貴를 免치못하리라한다

即 從前의 米資貸出은 低資의一錢三厘에對하야 自己資金을 犧牲的으로取扱하야 一錢六厘程度이엇스나 本年은 東拓、殖銀이 極度로自己資金의 貸出餘地가制限되는一方 豐年에依한 需資는 增大될것임으로 金利는引締될것이고 從前最高의 一錢八厘가本年은 最低로되어 二錢程度까지는 金融界가現狀을維持하는限 不可避하라한다

新穀低資 念慮업다
山地理財課長談

今秋의米穀資金問題에 關하야 山地理財課長은 如左히 自信잇게말한다

今年은 相當히 多額을 要할것이 確實하나 이것은 극해야겟다 資金이 圓滑히안되여서는 안되겟다

朝鮮臨時肥料統制
地方市價統制에重點

臨時肥料配給統制法은 今臨時議會의 承認을得하야 實施되고 日本內地에서는 肥料配給業者로서 組合을結成케하야 自主的으로 統制를行케하기로되엇고 朝鮮에서는 이에順應하야 制令으로서 臨時統制를 行키로되엇는데 朝鮮에서는 如何한統制形態를 取할지 特殊事情이잇슴으로日本內地法을 그대로 適用할것은全然豫想되지안코 別個의形式으로統制를行키에 至하리라한다 即右肥料統制의 對象이되는것은硫安만에限한關係上 朝鮮需要의八割을 供給하는 朝窒은거의 獨占的形態임으로 組合을 結成할必要가업고 總督府自體가 統制의主體가 되리라한다 總督府의意嚮은 地方의 一般市價統制에 重點을 置할모양으로 地方別로 肥料販賣業者를 指定하고 組合을 結成케하야 現統制法의缺陷을 補케될모양이라한다

小賣經營指導

京城府와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七日부터 五日間 東京商工相談所囑託岡田理一、사도우氏經營能率

輸送制限緩和
一日二百噸까지許容
月末엔解除狀態?

鐵道局의 輸送制限은 京城大阪間의 混載車扱과如한것은 거의休止狀態에 陷하얏는데 最近輸送制限이 緩和되어 七八十噸까지 許容되기에至하얏는데 六日부터 一日二百噸까지 緩和키로되엇다 從하야 朝鮮內各線의貨車도 增加되겟고 今月末까지에는 거의輸送制限이 解除되리라가는狀態로 되리라고 期待되는데 이로서 一般冬物의 仕入은 支障업슬것이라한다

米國、印度市場休會

外電中 米國物은 勞働祭로休會이오 印棉은 [illegible]祭로 休會이다

阪神滯貨山積

輸送制限下에잇는 海運界는 緩和에따라 日本內地 阪神地方에는 朝鮮向貨物의 滯貨가만허 定期側은 이것의積取로 鮮航組 滿船狀態인데 今後冬物仕入其他建設材料等으로 定期船의 海運界는 依然繁忙하리라한다

漁業用重油
供給不安업다고

漁業用重油의 配給特히 東海岸의 鰮、巾着網漁船에의 供給은 前年度一部에 配給不圓滑을 惹起하야 問題되엇스나 朝鮮石油에서는 이에鑑하야 萬全의 對策을 進하고잇슴으로 本年度는 假令需要가 倍增되드래도 供給不安이업게되엇다한다

兩無盡을新設

京城府內無盡會社의 從來의無盡金額은 百圓 千圓 二千圓 三千圓 五千圓의 五種類이엇는데 三社合同後의 中央無盡會社에서는 特히 小額無盡과 高額無盡의二種目을 新規增設키로되여 前者는 三百圓會 後者는 一萬圓會로서 十月부터 開始하리라한다

朝鮮產紙類 北支에供給

北支物資缺乏에對한 朝鮮으로부터의 供給은 朝鮮貿易協會에서 今月末頃 食糧品約二十萬圓을 輸送키로되어 目下準備를 急히하고잇는데 最近北支로부터 總督府外務部에 紙類供給을 依賴하야왓슴으로 그 供給을 和信百貨店에 依賴하야 同店主 朴興植氏도 時局關係로 奮起하야 遠히 見本을 보내고 朝鮮產紙類의 北支供給에 進出키로되엇다

強弱論의根據

東株投資會社創立으로 市勢는 下支되고 上向步調를 取코잇는바 이제強弱觀을 一瞥하면 그根據는 大體如左하다

1、強氣는(A)三、四月天井以來期待되든 底入이 되엇다는것 (B)二、二六事件當時低價를 下廻하얏스니 이미底入되엇다는것 (C)金融의 方途가打開되리라는것 (D)戰勝『인플레』를 期待하는것等으로 思惑買一貫을主張한다

1、弱氣는 (A)戰時이니平時와가티 底入을云할수업다는것 (B)支那事變이 긋나도 赤化防止가 큰問題인것 (C)統制經濟下에서 株式의 熱狂이라는것은 難期인것 (D)下支되어反反되엇지만 그伸力緩慢은 疑問이오 戰局國際의 突發材料가 생기면再崩三崩이 싱읍다는것으로 反實不敢한다

東株投資會社內容

東株取引所及 取引員首腦部에서는 株價暴落의對策에 對하야 協議中이든바 資本金二千萬圓의 證券投資會社를 設立하야 暴落株의 買支에 進出하기로 決定하얏는데 그機構及目的은如左하다

一、資本金 公稱資本二千萬圓 一株五十圓으로하야 第一回拂込二十圓 總額八百萬圓

一、出資者 取引員組合 東株代行會社 東株共榮會社 東株取引所（主務省의許可를要함）에서半額을引受하고 남어지半額은 取引員有志及 一般財界有志引受

一、創立期 六日拂込을마치고七日創立總會

一、運用資金 八百萬圓을 前途으로하야 買入株券을 擔保로 銀行으로부터 四千萬圓借入

一、買入株는 暴落의 程度가 甚한것을 主로한다

一、買入價格 大體 九月四日의市勢를 基準으로하고 이以上反騰되엇은 조차가며사는것은避한다 이미 六日부터 買出動하얏다

朝鮮米情一考

今年의朝鮮米作은 南朝鮮一部의旱地를 除外에는 大體無難의豐作으로 今後의天候가如干惡化한다할지라도 豫想그대로의 豐作은 變치안흘것이라는 觀測인데 假令朝鮮의 米收穫이 二千五百萬石 程度라하면 市勢는此以上高位置에 잇지안흘것이다 그條件몃가지를 말하면 來米穀年度부터는 時局關係로 短期低資의 融通이 줄어지고 三船腹의 關係로 日本內地의 移出이 不振하야 朝鮮서 실제消費하고도 [illegible] 이라고云云

市場六感

（株）…四日市勢의下로 떠러지면 投資會社가 買出動할터이니가 別段惡材料가 업스면 四日市勢는 下値가保證되세음드는모양▲問題는 支那를沈默시키드래도 그後에올 國際關係特히 蘇聯關係가 걱정▲이것을念慮하야 될것이냐 또는 이미底入되엇다보고 戰勝『인플레』를 볼것이냐가 强弱의分岐點▲戰時이니 無鉀한推斷은 不許▲近衛首相의貴衆兩院答辯中 『支那膺懲』이란것은 赤化勢力을 反省시키라는 것도 보인다

（米）…昨今의市勢는 似而非的形勢로 明確하지안코 結局은昇騰▲阪仁兩地를 不問하고 有力側이 大槪 買貫成하고잇슴으로 動亂反發의 氣勢를보이는것은 當然하다고 할수잇스나 若作의 大朔材料에 對하야 當然 度外視할수는 업는것▲昨日『론손』縣의 颱風이 發生하엿음을 唯一한材料로하야 各地共히 一致高値를 示하엿스나 此가 眞一 北西그대로 進行하야 支那大陸으로나 又는 北滿으로 달아나는때는相當한 反動落이 잇슬것도갓다 果如何?（鷗山）

今日의市勢 【七日】

株式 買物繼續 強騰

前場強堅

昨後場强大引後 今朝는東新百三十四圓二十七圓七十錢、日產六十一圓九十錢으로保合、鐘新七十錢低인二百八圓二十錢으로寄付後 堅商狀을呈하야 東新百三十四圓七十錢、鐘新二百十圓、大新七十三圓五十錢、朝新二十七圓七十錢 日產 六十二圓三十錢에 前引

後場上進

後場은東新百三十四圓五十錢、鐘新二百十錢에 寄後買物이 續出하야 鐘新二百十四圓、東新百三十五圓高로 續進이엇다

強調이나氣迷

支那事變의擴大、蘇支攻防定說 支那의國際聯盟提訴로 日本에對하야 經濟的抑制를하려는等은 相當히 惡材料에는 틀림이업스나 自制이것을 怯내는것보다는 興銀、中央金庫의 對支輸出品의 融資에 對한 金融緩和、東株의投資會社活動을 好感하야 六日來 買人氣를 喚起하야 活況을呈하고잇다 今春來 續落을보아 低價位에잇는만큼 이제는 [illegible]

國債 不安緩和 少高

【東京電話同盟】金融情勢에 對한 不安人氣는 幾分緩和되엇고 株式界의 好調도 反映하야 內債는 三分半 四分利는 保合이나 五分半은 利子關係로 十錢乃至二十錢上伸 佛貨도 五十錢騰貴이엇다

二回四分利	一〇〇七〇
佛貨	一九三〇

期米 漸進步調 上進

前場少戾 今朝는[illegible]

颱風의消息

最近仁川觀測所는 軍事의 關係로 天氣圖의 發表가 업스므로 今朝의 氣象豫報에 依하면 日本內地의 氣象狀況을 알수업스나 昨六日 東那一帶는 高氣壓圈內에잇서서 極히平穩한天氣이오 颱風『론손』은 高東方面으로부터 北西로徐行하는中이나 그勢力이 弱하므로 別로念慮될것은업슬것 같다고하엿스며 今朝東京은 曇、大阪은晴、下關은晴天으로 모다天氣가良好한편이다 [illegible]

後場續強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今日財界 七日

◆米（單位十圓）
仁川期米先限 三〇六五
大阪期米先限 三〇七二
◎三等米一石 [illegible]
京城一等白米百키로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價 三等 [illegible]
고무神月現 [illegible]

◆株 [illegible]

正米 閑散裡에 保合

京城保合

昨日相當히 精米側의 原料買가잇든뒤이라 各地期米의 上放로 當業側의 讓渡가 立치못하고 氣配는 前日과가티 保合이며 小口의 商談이 잇엇다

仁川不變

各地期米는 颱風來襲說로 上放되어 昨日相當히 飛付되엇스나 地場所持側의 賣惜과 精白側은 이以上의 高價로는 採算不合으로 傍觀하야 市勢는 前日同樣으로 膠着氣味이어서 底堅狀態이다 穀良 三等 三二、二〇 四等 三一、九〇 銀坊主 三等 三一、二〇 四等 三一、四〇 多摩 三等 三二、一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 三三、八〇

釜山不變

一般買氣는 萎縮되고 다만精米側의 必需買가 散見될뿐이다 三三、一〇 一等白米 三三、二〇 [illegible]

大邱保合

定期强調로 昨今에 依한 作況念慮로 硬軟材料의 交錯으로 商勢殆無하야 閑散場面을 示하고잇다 [illegible]

群山續硬

依然、新規買物 皆無로 一般人氣少堅하야 市勢도期米好轉과 日本內地買注文續行으로 十錢高의 强勢를 告하엿다 三一、九〇 三一、七〇 一等

木浦同調

現物市場으로는 所持側의 高唱이 訂正되지안코나 取引의 不實行으로 買氣도업고 商談도殆無狀態이다 三一、五〇 一等白米 一三一、五五

株式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實定代引日步 ◆短期主要取組高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海外經濟 六日
銀行券 六日
手形交換·金利
金銀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紡織製品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鰮油粕·麥粉 ◆阪神鰮粕 ◆阪神鰮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京城物價（七日）

▲白米（叺、單位圓）
多新胴特 一二六五 一等 一二五五
▲麥粉（二二瓩、單位圓）
二瓩四、六〇 카메리아 八、〇〇
▲肥料（一〇貫、單位圓）
硫安（各種統）三、九五
過燐酸石灰（仁川沖）三、〇八
豆粕（安東面·単枚）二、一〇
▲絲物（單位圓）
▲燃料（叺、單位圓）
▲煉瓦石（一〇〇〇枚）
▲砂糖 白 二三、四〇
▲梁米（單位錢）
▲機械 [illegible]
▲海産物（單位錢）
▲染料（斤、單位錢）
▲人絹（單位錢）
▲木綿（疋、單位錢）
▲毛絲（封度、單位錢）
▲牛皮乾百斤（單位錢）
京大皮 九〇、八〇
小皮 一等 八〇、〇〇
中皮 七八、〇〇
同 二等 六八、〇〇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生絲 ◆橫濱生絲
人絹 ◆各地人絹
棉花 ◆大阪棉花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期米 東 仁川府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應酬販賣引換代金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